

우리 선조들은
좋은 일도 꺾은 일도,
신날 때도 고될 때도
풍물을 치며
신명으로 하나가 되었다.

뽕과리와 징, 장구와 북,
쇠와 가죽을 두드리며
마을의 화합과 결속력을 다졌고
동시에 개인은 신명의 기운으로
몸과 마음에
옹이진 잡념을 깨뜨리고
샷된 기운을 훌훌 풀어냈다.

막힌 곳을 뚫어주는 풍물은
그래서 해원의 소리이고
해방의 몸짓이다.
터와 인간, 하늘을 이어주는
신바람의 언어다.



영덕 9개 읍·면 풍물단 1년의 기록

더를 울려다

영덕문화관광재단

2023 문화도시 조성사업
영덕 9개 읍·면 마을문화활성화사업



영덕 9개 읍·면 풍물단 1년의 기록

더를 울려다

“2023년은 9개 읍·면 풍물단으로 인해
영덕 곳곳에 신명의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풍물소리에 맞춰 함께 웃고 춤추고 해원하면서
올해도 한 판 잘 놀았습니다.”

더
를
울
려
다

2023 문화도시 조성사업
영덕 9개 읍·면 마을문화활성화사업

· 여는 말

· 9개읍·면풍물단 변화와 성장

아름다운 신구의 조화

강구면 풍물단

풍물로 다시 뭉친 우리

남정면 월봉 풍물단

세월로 다져진 내공

달산면 풍물단

활력이 실력!

병곡면 고래불 풍물단

대표선수의 위용

영덕읍 오십천 풍물단

실전의 달인

영해면 풍물단

젊은 열기로 재충전

지품면 도화 풍물단

탄탄한 기본기 최강자

창수면 풍물단

애향심 으뜸! 단합은 기본!

축산면 풍물단

· 내고 달고 맺고 풀고

풍물의 세계

· 2023 빛나는 순간들

· 축적의 과정

특강

· 다시 길을 열다

2024년 기대와 계획

· 에필로그



풍물로 화합한 영덕 9개 읍·면 이야기

영덕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사업본부 설태영 본부장

2020년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력 촉진을 위한 사업 청사진을 그릴 때 첫 번째 상상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덕군 9개 읍·면 곳곳에서 풍물 소리가 일상적으로 울리는 풍경이었습니다. 저 또한 재단의 본부장 이전에 풍물을 전공했고 40여 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11-1호 진주·삼천포농악 보존 회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농악놀이를 배우러 시골 마을을 찾아다니던 때가 생각납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풍물 꽤나 치시는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던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 되는 동네는 아이들 웃음소리하고 풍물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여!” 막걸리 한잔 얻어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지금은 어느 지역, 어느 마을이건 아이들 웃음소리는 물론 동네 풍물 소리도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영덕군이라도 풍물 소리를 되살려내겠다는 마음으로 9개 읍·면 풍물단 실태조사를 나섰을 때 마을의 첫 반응은 대부분 싸늘했습니다. 한결같이 두세 달 반짝하다가 관 행사에 동원할 거라는 불신과 원망 섞인 토로도 많았습니다. 특히 마을의 대소사를 도맡아 치르고 부모님과 주변 어르신들까지 돌봐온 동네 중장년 여성들은 봉사단체에다 생업까지 책임지고 있어서 무엇을 제안해도 손사래부터 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귀담아들으면서 재단은 가야 할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성과를 내기보다는 풍물을 치며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지원은 하되 간여하지 않는다!’는 큰 틀을 잡고 재단은 2022년부터 즐겁게 배우고 놀 수 있는 풍물 강습회를 매주 열었고 올해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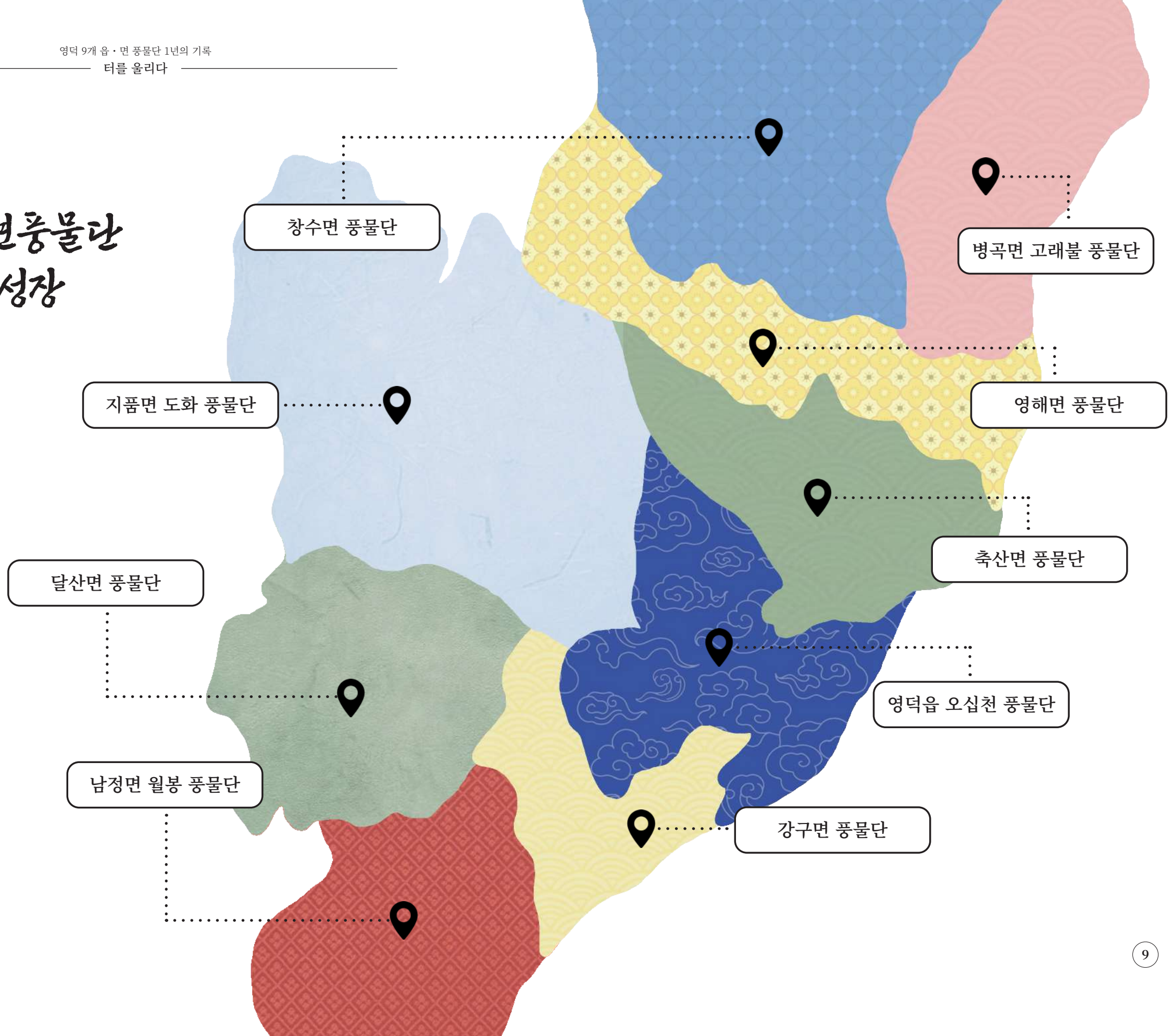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간 명맥만 유지되던 마을 단위 풍물단이 2년 만에 하나 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9개 읍·면 풍물단은 올 초 영덕대게축제 거리 퍼레이드, 복사꽃 축제 등 군 행사를 비롯해 국가민속문화재 301호 괴시민속마을에서 열린 마을굿과 지신밟기 완판 행사에도 주역으로 참여하면서 쌓은 실력을 뽐내고 자부심과 긍지도 끌어올렸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나 인구소멸, 지역 소멸을 걱정합니다. ‘소멸(消滅)’이란 말은 사라져 없어진다는 단순한 단어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람의 역사와 모든 경험과 자산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그야말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영덕군 9개 읍·면에선 풍물놀이가 부활했고 그로 인해 지역의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풍물단원들도 풍물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서 더 배우고 싶다는 욕심도 내고, 자체 공연 행사에 대한 꿈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야말로 올해 ‘영덕 9개 읍·면 마을문화활성화사업’의 가장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풍물은 마을공동체의 풀뿌리 에너지원이며 마르지 않는 활력의 샘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마음을 모을 때 힘을 발휘하는 대화합의 놀이입니다. 2023년은 9개 읍·면 풍물단으로 인해 영덕 곳곳에 신명의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풍물 소리에 맞춰 함께 웃고 춤추고 해원하면서 올해도 한 판 잘 놀았습니다. 내년은 더 즐겁고 신바람 나는 판을 펼쳐 남녀노소 모든 영덕인들이 덩실덩실 행복해지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풍물로 하나 된 영덕! 그 화려한 풍경은 내년에 이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신명나게 어울려 봅시다!

영덕군 9개 읍·면 풍물단 변화와 성장



강구면 풍물단

영덕 관광의 1등 공신, 영덕대계를 찾아 2020년 320만 명의 인파가 모여든 곳, 강구면. 대규모 대계거리가 조성된 영덕대계의 고장 강구면에는 대계만큼 자랑할 만한 단체가 있다. 강구면 풍물단.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강구면사무소 2층이 소란스럽다.

10년 전 창단된 강구면 풍물단은 결성 당시 25명으로 출발했고 현재까지 29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령대는 최고령 70대부터 40대까지 분포한다. 주부와 개인사업자, 직장인이 대부분. 신입회원은 모두 악기에 대해 문외한이었다가 풍물단에서 배움을 시작했다. 작년 11월부터 이들을 이끌어온 강사는 경주국악협회장 방영식 선생이다.



방영식 강사

강구면 풍물단은 작년 11월 10일부터 시작해 10개월 정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강구 경우는 40대 50대 젊은 분들이 신입으로 들어왔어요. 이 분들이 엄청나게 열정이 많아요. 그런 신입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구 세력들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현재 수업은 신입 위주로 하는데 받아들이는 속도가 아주 빨라요. 신입 수업에 오래 풍물을 한 고참들도 들어와서 다시 배우시는 거예요. 수업 자세와 태도가 정말 진지하고 좋습니다.

수업은 앉아서 악기만 하다 일어서서 움직이면서 발을 맞추고 있어요. 판굿*에 들어갔는데 벌써 완성도가 보입니다.

수업 목표는 신명의 공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업 방식은 다양하게 전개된다.

* 짜여진 일정한 공간에서 벌이는 풍물판

방영식 강사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요구가 다릅니다. '나는 잘하고 싶다!' 그러니까 기능 위주로 고급 기술을 배우러 온 사람도 있고 '난 한판 놀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수업을 하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신명을 공유하기 위해 먼저 한 판 놀고 짜여진 판(판굿)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판굿을 시작했기 때문에 신명의 공유보다는 이제 체계 속에서 또 신명을 끌어내야 해요. 기술이 자연스러워지다 보면 그때부터 신명이 나는 겁니다.



박오수 단장

제가 단장 역할을 맡은 것은 6-7년 전입니다. 북과 징을 주로 칩니다. 여러 취미 활동이 많지만 풍물 만큼 활력이 되고 힐링이 되는 게 또 있을까 싶어요. 수업은 신입 위주로 진행되지만 다들 잘 섞입니다. 연세 높은 회원들은 새로운 신입을 잘 안아주세요. 신입 위주의 수업이지만 선생님이 워낙 밀당도 잘하고 재밌게 가르치니까 초보들도 금방 따라와요. 옛날에 배운 사람들은 풍물이 손에 익어있지만 다시 배워도 즐겁다고 해요. 나와서 같이 어울리다 보면 흥도 나고요. 늦게라도 나오시니까 고맙죠.



김삼선 단원 (70)

농협 농가주부단부터 치면 풍물한 지 30년 됐어요. 전에는 장구를 했는데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 팔이 너무 아파 장구는 못치고 북을 해요. 요즘은 새로 들어온 젊은 단원들이 더 열정적이고 잘합니다. 초보지만 습득력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떤 거라도 다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나부터도 부족한 게 많은데도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단체 아닙니까? 재밌어요.



선생님이 초보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다듬어 주시니까요. 우리도 습득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빠지고 나오려고 해요. 풍물단 한 세월은 길지만 다들 생활이 바빠서 연습량은 다른 데 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딱 행사 나가보면 구력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리드를 참 잘해주시고 우리가 화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더 흥이 나고 재밌는 거죠. 선생님의 역할이 큼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저는 삼사해상공원 쪽에 살아요. 활동하는 거 좋아해서 제일 멀리서 여기까지 풍물하러 오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힘든 것도 몰라요. 운동도 되고 활력소가 생기잖아요. 나는 노래교실도 다니고 라인댄스도 했는데 바빠서 다 정리하고 여기만 나와요. 풍물이 제일 좋아요.



김미정 신입단원 (44)

작년 10월 15일 입단해 여기서 처음 장구를 시작했어요. 장구 하면 다른 악기는 쉽다고 해서 제일 어려운 장구부터 잡았죠. 처음부터 제대로 정공법으로 시작했어요. 선생님 수업이 지루하지 않고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나 모를 정도예요. 저는 현장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업은 딱 일정한 틀이 있는데 현장은 거의 즉흥적이잖아요. 현장은 현장대로 재미있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응용해서 잘 따라갔어요.



요. 지금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이 거의 20년 가까이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자동적으로 기본적인 장구 장단에 맞춰갈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가야금을 하고 있었어요. 장구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작년에 단장님을 우연히 만나 입단하게 됐어요. 그렇게 장구 시작해서 지금은 제 주위 지인들한테 추천하고 같이 배우는 분도 있어요.

방영식 강사

작년에는 철저하게 퍼레이드라든지 우리끼리 한 판 놀기 위해서 수업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교육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풍물패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 어떤 목적성이 없으면 이걸 배우면서도 결국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회원들이 나가버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해야 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퍼레이드, 체육대회, 축제, 정월의 지신밟기 등은 풍물의 장르가 다 다른데 지금 영덕에서는 교육 체계가 없어요. 다 섞여 있죠. 올해는 그 체계를 잡는 해였습니다.

설렘과 환희, 고생과 보람이 뒤섞였던 한 해.

지나간 시간 속에서 성과를 정리하며 내년을 그려보았다.



박오수 단장

작년에 비해 인원은 비슷한데 화합은 더 잘된다고 봐야죠. 서로 모르는 사람도 언니 동생하면서 친해지고... 나이 차를 못느껴요. 여기 나오면 즐거우니까 더 바랄 게 없어요. 저부터 걸음마니까 앞으로 더 배워야 되는데 봄, 가을에 괴시마을 지신밟기 같은 큰 행사가 더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그럼 행사에 맞춰서 더 열심히 연습하고 배우게 되니까요.



신입 단원들이 젊은 기운을 상승시키고 노익장을 과시하는 고참 세대는
든든한 뒷배가 되어 보이지 않게 팀을 이끄는 것.
자동차의 앞뒤 바퀴처럼 조화를 이룬 친구세대의 힘이
강구면 풍물단의 단단한 저력이다.

강구면 풍물단



박재민 | 이정미 | 이현숙 | 양옥동 | 김삼선 | 권경옥 | 김분순 | 김연주 | 김영하 | 구자정 | 김미정
강동국 | 백교흙 | 박순복 | 박오수 | 김정순 | 김복자 | 박배정 | 김양숙 | **방영식** 감사

북



양옥동 | 백교흙 | 김삼선 | 김분순 | 김복자
강동국 | 박배정 | 권경옥 | 김연주 | 김영하 | 구자정

쇠 | 징



박순복 | 박오수 | 김정순

장구



박재민 | 이현숙 | 우위자 | 김양숙 | 이정미 | 김미정

남정면 월봉 풍물단

영덕군 최남단에 위치한 남정면. 한국전쟁 당시 장사상륙작전이 벌어진 피의 전적지, 장사 해변이 최근엔 서핑족의 성지로 떠올랐다. 과거와 현재의 아이러니가 공존하는 곳, 남정면에는 뭉쳤다 흩어지고 다시 모여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쓰고 있는 월봉 풍물단이 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남정면 면사무소 2층은 풍물의 해방구가 된다. 주인공은 월봉 풍물단. 쇠와 가죽이 울려 내는 시끌벅적한 풍물 가락과 그 보다 더 밝은 웃음소리, 고음역대 남녀혼성 수다가 저녁 내 끊이지 않는다.

남정면은 영덕군에서도 포항과 인접해 있고 상업지구가 발달했기 때문에 단원들도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많다. 덕분에인지 풍물단 전체가 명랑 쾌활하고 활기찬 분위기다. 하지만 남정면은 풍물 소리가 끊기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기존 수십 년 활동해 오던 남정 월봉 풍물단이 해체되고 단원들이 흩어져 버린 것. 하지만 잠시 사라졌던 ‘월봉 풍물단’은 작년 옛 간판을 다시 걸고 새롭게 출발했다.





강신관 단장

2022년도 7월 달에 재창단했습니다. 다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기존 멤버 몇 분 외에는 인원이 없어서 제가 현수막 붙이고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 모았죠. 처음엔 13명으로 출발했어요. 지금은 좀 더 늘어서 25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연습이나 행사 있을 때 모이는 분들은 모두 열일 젖혀놓고 뭉치는 정예 멤버예요. 사실 이곳에 사는 분은 30%도 안 되고 타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밖에서 유입된 분들이 의욕도 넘치고 뭐든지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팀원으로 으샤으싸 시작했습니다. 저야 풍물이 너무 좋으니까 남정면에 풍물단이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 나서게 된 겁니다. 이전 단체에서 부단장을 했거든요. 재창단을 주도하면서 단장을 맡았어요. 풍물은 마을의 꽃이잖아요. 보물이고요. 풍물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해요. 화합도 안되고. 우리 단원들은 모두 회사도 나가고 가게도 하고 농사짓고 고기도 잡는 분들이라 늘 바빠요. 그래도 우리 전통 풍물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려는 열정이 있으니까 연습이나 행사가 있을 때 꼭 오세요. 남정면 월봉 풍물단은 이분들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유순희 단원 (63)

저는 풍물한 지 6년 됐어요. 저희는 15명 정도 모여서 선생님 모셔다가 따로 배우는 팀이었는데 월봉 풍물단이 재창단하면서 합류하게 됐고 저희가 들어오면서 정원이 됐어요. 우리 팀의 특징이라면 일단 열정이 넘치고 화합이 잘 돼요. 단장님이 술선수범해서 공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드세요.

서은숙 단원 (54)

저도 월봉 풍물단이 재결성되었을 때 같이 시작했어요. 햇수로 2년 되었네요. 올해는 제가 하는 장구 외에 팽과리나 북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좋았어요. 또 어느 정도 가락에 대한 이해도도 깊어졌고 전반적으로 실력도 올라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계속 모이지 못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인지 몰랐거든요. 이 안에서만 놀다보니까 재미도 없고 침체됐어요. 올해는 여러 축제와 행사에 자주 나가다 보니까 처음엔 자신 없어 하다가도 점점 신명이 올라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잘한다. 잘한다’ 막 최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현장에서 신나게 폴리더라고요.



특히 이곳은 달산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준호 강사가
1년 전부터 교육을 맡아 신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강신관 단장

작년 7월부터 우리가 정준호 강사님을 초빙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단원들은 일단 수업에 들어오면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배운 것도 복습할 겸 다 악기 메고 즐기길 원하거든요. 강사님은 한 가락이라도 기초를 단단하게 잡아주시는 타입이고 단원들은 많이 즐기는 스타일이죠. 그래도 우리 모두 강사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야 풍물의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서로 합을 맞추는데 1년 걸린 것 같아요.



남정면 풍물단에 도전장을 던졌던 정준호 강사는
지나온 걸음을 돌아보며 올해를 성찰한다.



정준호 강사

‘여러분은 나에게 미지의 대상이고 내 도전의 영역이다. 도전 의식을 갖고 한번 해보겠다!’고 선언하고 매주 남정면으로 온 지 벌써 2년이 되었네요. 남정면 월봉 풍물단은 팀 색깔이 달라요.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자존감도 높아요. 그래서 제 수업 방식도 다른 지역과 좀 차이가 납니다. 아직까지는 좀 기계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1년 동안 큰 변화가 있었어요.

기술적인 것보다 어떤 사람에 대한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말로 표현 안되는, 변화된 느낌이 있어요. 지금 1년이 지나고 보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변화하리라 봅니다. 남정풍물단은 연령대도 그렇고 젊은 에너지가 있거든요.



오랜 역사를 초석 삼아 다시 걸음마를 시작한 남정면 월봉 풍물단.
올해는 풍물단이 다시 터를 다지는데 주력했다면 내년은 실력으로,
명성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강사와 단장, 단원의 마음은 이미 하나다.

남정면 월봉 풍물단



김학철 | 유순희 | 양정희 | 손귀순 | 서은숙 | 이정락 | 김연숙 | 백미진 | 최남순 | 김태욱 | 김진만
강신관 | 장다혜 | 정화자 | 예진연 | 박정원 | 최해익 | **정준호** 강사

쇠 | 징



김진만 | 유순희 | 최남순 | 김태욱 | 김학철

북



강신관 | 정화자 | 예진연 | 장다혜 | 박정원 | 최해익

장구



김연숙 | 서은숙 | 양정희 | 백미진 | 손귀순 | 이정락

달산면 풍물단

물빛 맑고 산빛 고운 달산면. 팔각산 침수정 옥계계곡 등 명승지가 유명하지만 인구는 영덕군에서 가장 적은 곳. 하지만 풍물에 대한 열정과 자긍심 만큼은 드높은 곳이 달산면이다. 바로 이들, 달산면 풍물단이 자리해있기 때문이다. 매주 월요일 7시. 달산면을 찌렁찌렁 호령하는 풍물소리가 울려나오는 곳이다.

달산면 풍물단은 여러모로 독특하다. 8년 전 군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유일하게 풍물단 없었던 달산면에서 단원을 급히 모아 창단했고 닷새 뒤 대회에 나가 상을 타는 기적을 일궈냈다. 덕분에 달산면 풍물단은 해체의 수순을 밟지 않고 여세를 몰아 풍물 하나로 우뚝 서게 된다. 이 드라마 같은 창단 스토리의 주역은 현재까지 8년간 단체를 이끌고 있는 정준호 강사다.





정준호 강사

가락도 만들고 아예 창작을 했죠.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자리에서 군수가 달산면에게 금일봉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게 어설프게 출발한 풍물단이 다음 해 대게축제에선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결성 첫 해부터 최우수상, 대상을 거머쥐고 완전히 탄력을 받은 거죠.



34년 전 달산면 옥계리로 들어온 정준호 강사는 사실 풍물 전문가가 아니라 풍물 치는 예술가들을 이끄는 마당극 연출가이자 기획자였다. 그가 달산면 풍물단을 맡으며 내건 조건은 하나였다.

정준호 강사

제가 그랬죠. '나는 풍물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같이 재밌게 노는 방법은 가르쳐줄 수 있다. 풍물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라. 그래도 나와 함께 가보겠다면 수업료 없이 밥을 해와라.' 왜 밥이었을까요?



다함께 먹을 끼니를 만든다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먹을 사람들을 생각 하면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정말 귀찮은 거거든요. 하지만 8년 동안 그걸 해내고 있어요. 우리 단원들이. 이 분들이 매번 돌아가면서...즐거우니까 하는 거죠. 의무가 되면 못하죠. 풍물 치고 밥 먹고 또 풍물 치고... 그렇게 8년을 해왔는데 서로 반목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단단한 한 팀이 됐어요. 풍물은 기술로 배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풍물은 관계의 예술이에요. 풍물의 정신은 대동(大同) 정신입니다. 사람을 화합시키는 힘이에요. 최소한 풍물 안에서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노는 걸 보면 알아요. 진심으로 노는지 아니면 기계적인지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풍물이 참 좋은 게 포용과 관용의 예술이거든요. 나 같은 박치음치도 풍물을 할 수 있어요. 물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풍물은 기계적으로 딱딱 짜여져 있는 게 아니어서 틀려도 서로 감싸줘요.

청출어람이라고 달산면 풍물단 단원들 역시 강사 못지않은 열의와 자세를 갖추고 있다.



유상준 단장

8년 전에 선생님과 인연 맺게 되면서 단체가 제대로 꾸려졌어요. 창단 당시 8명이었는데 지금은 30명 가까이 활동하는 대표 풍물 단체가 됐죠. 저는 창단 멤버인데요. 10년 전에 은퇴하고 달산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 풍물단 한다고 해서 집사람도 데리고 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평소에 여러 악기를 다루고 행사에 나가면 꼭 북을 잡았어요. 근데 이 전통악기가 막상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엄청 어려워요. 박자 하나만 딱 바뀌도 일주일 내내 헤매게 돼요. 이게 쉬운 건 아니구나 배울수록 느끼죠.

오늘은 힘 들어서 안가고 싶어도 선생님 애쓰시는 걸 생각하면 와야 해요. 아무리 바빠도 월요일 저녁엔 일 마치고 집에 가서 복장을 갖춰 입고 나와요. 옷 매무새부터 풍물을 대하는 자세 잡아요. 우리는 농담은 잘해도 막말하는 게 없어요. 선생님이 그러세요. '내가 먼저 팀에 들어왔다고, 잘한다고 가르치지 마라. 지시하지 마라. 스스로 터득할 때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라.' 단호한 지침이 있어요. 우리 팀은 끈끈한 전우애 같은 게 있어요. 단원 중 누구라도 우환이 있으면 서로 돕고 챙기죠.

한바탕 길놀이로 신명을 올리고 나면 잠시 숨을 돌렸다가 분위기를 바꿔 수업 모드로 전환한다. 풍물 수업도 정준호 강사가 집중하는 방식이 있다.



정준호 강사

가장 기본적으로 전 단원들이 장구를 칩니다. 풍물단 단원들은 대부분 연세가 높잖아요. 웃고 떠들고 노는 가운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실력이 늘어야 돼요. 오늘이 어제 같고 그러면 안되고 자기 성취감이 있어야 해요. 뿌듯한 성취감이 있어야 나오고 싶죠. 하지만 강요하지 않아요. 가르치려고 안하고, 틀린 걸 틀렸다고도 안해요. 방법만 가르쳐주죠. 전 틀린 사람을 더 좋아해요.

가락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 굿거리 장단만 해도 수천 가락이죠. 자진모리도 수백 가락이고 휘모리가락도 수십 가락이고 이런데 그 가락 하나하나에 매몰돼서 가버리면 정작 한 장단도 제대로 못 치고 10년 20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0년 20년 장구를 쳤다는 사람을 봐도 호흡이나 제대로 된 장단 하나를 못치는 경우가 많아요. 허송세월한 거죠. 저는 가장 기본으로 쪽쪽 몰고 나갑니다. 지금도 보면 “선생님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계속 연습하다보면 듣는 귀가 열리고 차이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많은 걸 가르치기보다는 제대로 된 것 하나를, 건성이 아니라 제대로 익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연결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달산면 풍물단이 내세우는 또 하나 강점이라면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정준호 강사는 포항에서 가르치는 풍물단과 달산면 풍물단을 연결해서 지역을 넘나들며 공연을 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늘고 인구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지역에서 풍물을 계승할 젊은 세대가 없다면 대안은 지역 간의 교류와 화합이다.

풍물은 많이 모여서 쳐야 맛도 있고 재미가 있는 법. 풍물을 매개로 연결고리를 지어서 인간관계의 외연을 확장하고 동일한 취미 활동으로 추억을 공유한다. 지역이 달라도 행사가 있을 때 한 몸으로 움직이면 경험치와 실력이 늘고 동지애도 생기는 것이다.

달산 아리랑
- 달산면 풍물단 지음

달산 아리랑 — 상쇠
달산 아리랑
— 상쇠 —

여봐라 벼구야! 우리가 이렇게 맨날,
꽤깁깁 꽤깁 메구만 칠것이 아니라 오늘같이 좋은
영덕대게축제에 달산아리랑 한번 불러 보세~

(치배) — 조오치!
상장구 — 세마치 장단
— 덩 덩따쿵따 —

(후렴) 아리다~알산 쓰리다~알산
아라리가 나았네~에~
아리랑 달산으로 날 넘겨 주소~
와왔는교! 와왔는교!
옥계계~꼭 물도 좋고
인심조~오은 달산 이라네!
(후렴)~
묵어왔나! 묵어왔나!
영덕대~게~에 맞도조오코 영양조오~은 영덕대~게!
(후렴)~

올 한 해 달산면 풍물단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고 그 와중에 중요한 성과 또한 분명히 있었다.

정준호 강사

올해 달산면 풍물단의 성과라면 일단 신입단원들이 유입이 됐다는 점이죠. 그건 뭘 반증하느냐면 그동안 풍물단이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고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다는 거죠. 이렇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합류를 해주는 것이 큰 성과이고요. 또 지역사회도 어느 정도 달산면 풍물단의 존재 가치를 알아준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달산면에 풍물단이 있으니 참 유용하구나.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행사도 뭔가 풍성해지는구나.' 인지하게 된 거죠.



정준호 강사

풍물의 핵심은 대동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대동이 되려면 마음가짐이 넉넉해야 합니다. 쪼잔하면 안돼요. 포용력이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늘 수업이나 공연에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역사회의 탤런트이고 연예인들이고 광대라고...광대(廣大), 말 그대로 넓고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마음가짐으로, 뭐든지 포용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연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업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삼배를 합니다. 세 번 서로 절을 하고 수업을 시작해요. 제일 첫 번째 절은 스승에 대한 예의로 오늘도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절은 본인에 대한 절이에요. 오늘도 내가 멋지게 잘 살았구나. 세 번째는 옆에 있는 동료에게 전하는 감사의 절입니다. 혼자면 심심했었을 텐데 내 옆에서 함께 놀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고 세 번 절을 합니다.



풍물이란 인연의 끈을 잡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쌓아온 8년 세월,
단순한 악기의 울림을 넘어 배려하고 존중하고 포용하는
풍물의 정신을 닮아가고 있다.

달산면 풍물단



윤옥분 | 남성복 | 윤종원 | 정차연 | 최말선 | 이영옥 | 이수연 | 김수연 | 윤정아 | 이선정 | 최영화 | 김경준
서정희 | 최경숙 | 정광희 | 유상준 | 박태욱 | 김형래 | **정준호** 감사

쇠 | 징



윤옥분 | 정광희 | 최말선 | 이영옥 | 윤종원

북



김형래 | 김수연 | 유상준 | 박태욱 | 김경준
이선정 | 서정희 | 최경숙 | 이수연

장구



정차연 | 최영화 | 윤정아 | 남성복

병곡면 고래불 풍물단

2023년 11월, 월요일 오후 7시. 짧은 겨울 해가 어느새 저물고
마을의 집집마다 하나 둘 불이 켜질 때 깜깜한 병곡면사무소 2층이 다시 환해졌다.

가족의 밥상을 차려주고 함께 할 시간에 집이 아닌 면사무소 2층 강당에 모인 사람
들. 두건을 쓰고 오방색 띠를 메고 복장을 갖추자 어엿한 풍물꾼으로 변신했다.

쇠를 쥔 상쇠와 부쇠, 징을 든 2명, 장구 10명, 북 10명, 소고 1명.
오늘의 참여 인원은 총 25명. 전체 28명이 활동하는 병곡면 풍물단이다.

병곡면 고래불 풍물패는 1995년 5월 결성된 북영덕농협(구 병곡농협)의 여성농악단
즉 농가주부단에서 기원한다.

2006년 6월까지 병곡농협 농가주부풍물패로 활동하다 합병 과정을 거쳐 2006년 7
월 북영덕농협 고래불풍물패가 되었다. 그러다 관리 주체가 농협에서 면으로 이관되
면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병곡면 고래불풍물패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면민 화합 잔치와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가을들잔치 허수아비축제, 전국 마라
톤대회, 복사꽃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출연, 흥을 돋우고 군민을 단합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2022년 영덕문화관광재단의 지원이 시작됐고 김나영 강사가 본격적으로 결합
해서 수업을 이끌고 있다.





김나영 강사

제가 작년 중순에 와보니 코로나로 수업을 쉬고 있었어요. 풍물 수업을 시작했을때 처음에는 원래 풍물단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 "왜 앉아서 치느냐?"고 하셨어요. 그래도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와서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았죠. 다들 밝고 명랑하세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니까 제가 이 분위기에 들어서 그냥 쑥 들어왔죠. 요즘은 쉬던 분들이 오히려 다시 모이고 계세요. 풍물이 재밌으니까 다시 나오시는 거죠. 병곡면 풍물단은 무엇보다 팀워크가 정말 단단해요. 상쇠하던 분이 무릎이 안 좋아서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부쇠가 상쇠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상쇠를 맡은 지 한 달도 안돼서 공연을 이끄셨어요. 단원 전체가 마음이 잘 맞은 거죠. 정말 잘 하셨어요. 단원들이 모두 진도도 잘 따라와 주시고 적극적이고 의지도 높아서 오히려 저한테 더 요구를 하세요. 열의가 대단하죠. 저는 영덕문화관광재단 소속 팀 중에서 제일 잘하는 단체 중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선반놀이*가 시작됐다.

이렇게 한번 판을 돌며 신명을 올린 후 수업으로 진입한다.



수업은 악기 파트별로 진행된다. 단체가 움직이는 길놀이 경우는 호흡을 잡으면서 하면 1시간 반을 다 뛰지는 못하기 때문에 매 주 한 악기씩 모아서 30분씩 집중 수업을 한다. 악기별 수업은 타법과 호흡, 기본기 연마에 집중된다. 워낙 오래 풍물을 한 회원들이 많지만 기초부터 다시 다지는 김나영 강사의 수업은 모두가 원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실력이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

* 서서 하는 판놀음

김나영 강사

제가 기초를 좀 탄탄하게 만드는 편이라서 아마 좀 힘드셨을 거예요. 풍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다들 쿵쿵타 가락은 치는데 정확하게 호흡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르신들께 호흡을 엄청나게 많이 가르치고 발 놀음 같은 것도 제가 좀 집착하듯이 수업을 해서 좀 어렵다 생각하셨을 것도 같아요.

사실 호흡이 중요하거든요. 선반(서서놀음)을 할 때 호흡이 따라주지 않으면 로봇처럼 걸어갈 수있기 때문에 예쁘지 않아요. 걸으면서 멋지게 치기 위해선 호흡이 받쳐줘야 하거든요. 타법, 호흡, 기본기 이런 거에 중점을 두죠. 손 동작도 연결 동작인데 다들 따로 하세요. 연결 동작을 하려면 호흡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래야 걸으면서 칠 때도 온 몸으로 장단을 타게 되죠.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1년을 했다 해서 1년 안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해도 잊어먹게 돼요. 판놀음을 하다 보면 신이 나서 또 까먹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기본기부터 하고. 공연 갔다 오면 그 현장의 여운이 남다 보니까 또 잊어먹고 하세요. 그러면 “안돼요, 안돼요. 우리 팀 다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막 그러죠.



병곡면 고래불 풍물패를 10년째 이끌고 있는 권오진 단장, 그가 단체를 맡았을 때만 해도 20년 전 농협 농가주부단 시절부터 해온 멤버는 10명 남짓, 총 인원이 13명 밖에 안됐다. 수업을 해도 9명, 10명 정도 모였는데 지금은 새로 단원들이 들어와서 총 인원 28명이 되었다. 김나영 강사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고 단원도 부쩍 늘었다. 그래도 단원들이 대부분 직장을 갖고 있거나 농사를 짓기 때문에 모이는 자체가 어렵고 평균 연령이 높아(최연장자 73세. 평균 66-67세) 애로점은 여전하다.

권오진 단장

강사님이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와서 잘 가르치려고 해도 평균 연령이 60이 넘으니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집에 가서 바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기존에 하던 것만 계속하지요. 그래도 손발을 잘 맞추면 어떤 행사에 가도 다른 팀에 지지 않아요. 단합이 잘되는 것도 우리 팀의 장점이고요.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김옥한 단원 (66)

장구 친 지 1년 됐어요. 이전에도 한 1년 정도 했는데요. 장구가 제일 어렵다는데 저는 장구가 끌리더라고요. 강사님하고 공부한지는 1년 정도 됐는데 재밌어요. 잘 이끌어주세요. 사실 가르쳐주셔도 계속 잊어버리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반복 반복하니까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귀촌을 했는데 여기 단원들이 추천해서 들어왔어요. 풍물단과 함께 하면서 잊어버렸던 걸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주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스스로 자부심도 생겼고요. 성취감도 커요. 여기 나오는 게 운동이고 기분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최위순 단원 (70)

집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풍물도 치러 다닌다고 대단한 사람이야...이렇게 인정해줘요.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여기 나오는 게 좋아요. 사실 농사일이 힘들어서 빨리 자고 싶는데 억지로라도 나와서 풍물 치면 다시 활발해지고 몸이 가벼워져요. 그래도 나이가 있잖아요. 내 마음은 더 하고 싶고 더 잘할 것 같은데 몸이 안 따라줘요.

언제까지 할 것 같으냐고요? 아플 때까지는 해야죠. 내가 풍물 한 지는 20년이 넘었어요. 젊을 때부터 했죠. 그전엔 맨날 앞장섰는데 나이가 있어서 이젠 젊은 사람들이 앞에 서고 저는 뒤에서 따라가죠. 악기는 장구해요. 처음엔 북을 하다가 요즘 신입생들이 북을 많이 해서 저는 장구로 갔어요. 이거 하라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해요. 그래도 즐거워요. 장구가 저하고 잘 맞고요. 집에서 일하다가 캄캄해져도 월요일엔 자동으로 이리로 달려 와요.



2024년 병곡면 고래불풍물패는 또 어떻게, 얼마나 성장하게 될까?
단원들의 기대가 크다.



김옥한 단원 (66)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좀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수업도 색다른 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다른 군. 면에 견학을 가도 풍물을 다 하더라고요. 한번은 제천에 가서 거기 어른들 풍물 하는 데서 같이 두드려 봤거든요. 그분들은 참 오래 하셔서 잘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도전 의식이 생겼어요. 내년엔 꼭 새로운 거 하고 싶어요.



밝은 에너지로 단단한 하나가 되어 달려가는 병곡면 고래불 풍물단,
서로 어깨 걸고 함께 하는 단합력이 병곡면 고래불 풍물패를 움직이는 힘찬 엔진이다.

병곡면 고래불 풍물단



서은섭 | 김옥한 | 김영란 | 손순란 | 김춘옥 | 김숙희 | 한귀자 | 김유분 | 김순희 | 조영란 | 김순향 | 박말순
김윤희 | 윤미옥 | 최위순 | 강옥이 | 황영옥 | 신옥이 | 문영희 | 김명숙 | 김순복 | 송창수
김순동 | 황기자 | 이인순 | 권오진 | 권순금 | 강신기 | **김나영** 강사

쇠 | 징



강신기 | 권오진 | 송창수
김순동 | 이인순

북



한귀자 | 김유분 | 권순금 | 김순향 | 김순희
김명숙 | 문영희 | 신옥이 | 강옥이 | 황영옥

장구



김영란 | 김춘옥 | 손순란 | 김옥한 | 조영란
김숙희 | 황기자 | 윤미옥 | 최위순 | 김윤희

영덕읍 오십천 풍물단

영덕읍 오십천 풍물단은 9개 읍.면에 각각의 풍물단이 정착하기 전부터 경북도와 전국 풍물대회가 열리면 도맡아 출전해 온 영덕의 풍물 대표선수단이다.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둬서 영덕 풍물단의 자존심을 지켜왔다. 군내에선 영덕읍 행사, 문화원 행사, 대게축제, 복사꽃축제, 해맞이 행사까지 영덕군의 대표 행사에 빠짐없이 참가해 흥을 돋웠다.

오십천 풍물단의 역사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 20년 넘게 활동하던 농협 농가주부단이 해체되고 2004년 읍에 귀속된 단체로 오십천 풍물단이 본격 창단한 것이다. 초창기엔 영덕읍 외 다른 면 단위에서도 참가해서 60여 명이 복적였는데 지금은 4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연령대는 40대가 3명. 50대, 60대가 주류를 이룬다. 오십천풍물단은 영덕읍 주민이 아니더라도 참여가 가능한데 가입은 65세까지로 제한을 두었다.

영덕군의 풍물 대표선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막상 단장과 단원 모두 입을 모아 말하는 목전의 어려움이 있다.





박인숙 단장 (68)

저는 2004년 창단 멤버죠. 풍물단 단장을 맡은 지는 올해 7년 됐습니다. 우리 단체는 작년에 신입이 7명이나 들어왔어요. 올해도 5명 확보해 놓았고요. 그런데 수업을 저녁에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영덕읍이나 다른 면 단위 주민들도 낮에는 직장다니고 농사짓고 해야 하잖아요. 저희가 영덕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낮에 해야하고 2-3시간 밖에 여유가 없어요.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영덕군 체육관이 아닌 다른 장소가 필요해요.

조경현 단원 (상쇠)

팽과리 자체가 잘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들끼리 연습해서 실력을 더 쌓고 싶어도 연습할 공간이 없어요. 영덕문화체육회관 대강당이 목요일 낮 2시간 밖에 허용이 안되거든요. 체육관에 행사가 있으면 비워줘야 하고요. 남아서 연습하거나 따로 모일 곳이 없어요.

회원들이 모이는 날이 목요일 딱 하루이기 때문에 대부분 악기를 차에 싣고 가져갔다가 가져와서 쳐요. 어차피 우리는 도대회도 나가야 되고 공연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가고 싶은데 연습할 곳이 없는 거예요. 내년엔 안정적으로 훈련할 공간을 좀 더 확보하고 시간대도 바뀌어서 집중적으로 실력을 높이고 싶어요.



이곳은 포항에서 공연단체를 이끌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연 강사가 2020년 합류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만나지 못하다가 작년 말부터 올해 본격적으로 수업에 박차를 가했다. 현재 안정기에 이르기까지 고충도 많았다.



박인숙 단장 (68)

김도연 선생님이 오셔서 그 전에 30년 동안 배운 발디딤도 바꿨어요. 처음엔 왼발을 댔는데 오른발 먼저 떼고... 처음엔 좀 헷갈렸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김도연 선생님께 경상도 가락을 배우는데요. 아직까지 적응이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경북도대회를 가잖아요. 선생님께 배워서 작년 올해 두 번 나갔어요. 22개 시군 중에서 작년 3등, 올해 4등 했어요.





조경현 단원 (상쇠)

2004년 창단 멤버예요. 여기서 쇠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상쇠를 맡고 있어요. 작년 김도연 선생님 모실 때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30년 동안 한 선생님께서 배우면서 생긴 분위기를 이제 좀 바꿔보자.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면서 저는 앞에 배운 것을 다 버렸어요. 새로운 걸 그냥 받아들인다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김도연 선생님에게 새로운 걸 접하고 싶었거든요. 방식이 달라도 습득이나 축적은 잘 됐어요. 착착 그냥 스며들었어요. 물론 오랜 시간 배워온 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렇겠죠.

김도연 강사

30년 동안 다른 선생님께서 배워서 몸에 배어 있던 습관이 있고 제가 와서 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처음에는 서로 힘들었죠.

그림 그릴 때 흰 도화지에 그리면 쉬운데 이미 그림이 그려있는 도화지를 다시 지워가며 새 그림을 그린다는 건 어렵거든요. 30년간 풍물을 해오신 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그렸던 그림을 지우라고 하면 공감을 얻기가 힘들죠. 제가 뭘 가르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회장님이나 특히 상쇠님이 되게 소탈하시고 소통을 잘하세요. 답답하면 답답하다 얘기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한테 요구도 하고 그렇게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해주셨어요. 또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부쇠님하고 신입단원들은 저 밖에 모르니까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됐어요. 결국 단장님이 강한 카리스마로 이끌어주시고 상쇠님은 다른 회원들과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고... 부쇠와 신입회원들이 열심히 따라와 주었기 때문에 올해 빨리 자리잡은 것 같아요.

박미례 단원 (부쇠, 56)

팽과리 한 지 7년 됐어요. 오십천 풍물단 들어와서 배웠어요. 쇠가 저한테는 잘 맞아요. 쟁쟁 거리는 소리가 좋아요. 다른 북이나 장구나 그런 건 흥미가 없어요.

김도연 선생님이 와서 완전히 바뀌었죠. 가락도 다르고 타법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들 잘 하세요. 햇수로 2년이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새로 배우는 초창기이고 기초 과정이에요. 좀 더 해봐야죠.





서진애 단원 (55. 신입)

작년 11월 입단해서 풍물 한지 이제 1년 됐어요. 북은 여기서 배워서 처음 쳐봤어요. 저는 김도연 선생님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젠 일주일 너무 길고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제가 워낙 소심하고 낮가림이 심하거든요. 처음엔 수업 전날마다 나혼자 몰라서 틀릴까봐, 실수할까봐 잠도 잘 못 잤어요. 수요일엔 걱정이 태산이었죠. 남편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면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동영상 보고... 집에서 독학으로 막 공부했어요. 딱 한 번 친정 엄마 제사 때 못 왔고 한번도 결석 안했어요. 풍물단에서 북 치면서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성격도 엄청 밝아졌어요. 같이 어울리면서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여기서 연습한 걸로 올해 도대회도 가고 향교에서 하는 전통혼례에도 두 번 가서 풍물 쳤어요. 그렇게 행사에 자꾸 나가니까 자신감도 붙고 평소에도 잘 웃지 않는데 웃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남편도 애들도 ‘엄마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올해 진짜 좋은 경험 많이 했고 많이 배웠어요. 내년에도 지금 하는 것 완벽하게 하고 싶다. 이 판이라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 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돌아서면 까먹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 맞네.. 그런 게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완벽하게 잘하고 싶어요.

나서 동영상 보고... 집에서 독학으로 막 공부했어요. 딱 한 번 친정 엄마 제사 때 못 왔고 한번도 결석 안했어요. 풍물단에서 북 치면서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성격도 엄청 밝아졌어요. 같이 어울리면서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여기서 연습한 걸로 올해 도대회도 가고 향교에서 하는 전통혼례에도 두 번 가서 풍물 쳤어요. 그렇게 행사에 자꾸 나가니까 자신감도 붙고 평소에도 잘 웃지 않는데 웃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남편도 애들도 ‘엄마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올해 진짜 좋은 경험 많이 했고 많이 배웠어요. 내년에도 지금 하는 것 완벽하게 하고 싶다. 이 판이라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 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돌아서면 까먹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 맞네.. 그런 게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완벽하게 잘하고 싶어요.



이전 전라도 가락을 배웠던 단원들에게 경상도 가락을 다시 가르치는데 거기에도 강사의 남다른 고집이 있었다.

김도연 강사

저는 지역색이 문화 쪽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다양성이란 면에서도 그렇고 지역의 특색, 고유성을 살려야 해요. 제가 단원들의 성정이나 말씨나 그런 걸 볼 때 느꼈던 전라도 가락보다 시원하고 호쾌한 경상도 가락이 더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방영식 선생님 하시는 건 경상남도 쪽이고 저는 경상북도 방식이에요. 공통점은 빠르고 경쾌하다는 거죠. 시작부터 텐션을 확 올려서 굉장히 빨리 쳐요. 그거를 젊은 친구들처럼 확 따라오지는 못하더라도 느낌은 알고 표현하세요. 타법도 굉장히 좋아 지셨어요. 처음에 ‘뚝뚝뚝뚝’ 이렇게 치던 가락을 ‘지지깡지지’ 이거 계속 굵어 줘야 되니까 손이 아주 빨리 부드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바꾸는 게 본인들 속에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어른들이 믿고 따라와주시니까 감사하죠. 올해는 수업이 조금 정착됐지만 개별적으로 개인 악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래도 판이 많이 정리됐어요. 전 요즘 되게 뿌듯해요.



올해 오십천 풍물단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랑할 만한 성과는 또 있다.

김도연 강사

이젠 제가 없거나 만약 못오더라도 상쇠와 부쇠님이 판을 이끌 정도로 성장하셨어요. 작년까진 힘들었어요. 그게 되면 자체 연습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평소 판놀음을 할 때도 저는 판을 이끌어가거나 선두에 서지 않아요. 제가 끼어들면 절대 자립이 안되요. 제가 하나를 툭 던져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뭐가 문제인지, 내가 없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뭔지 알아내서 바꿔주는 것이 제 목적이죠.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지 않아요. 단원들이 스스로 판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크죠. 그래서 상쇠 부쇠 교육에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오십천 풍물단의 판놀음에는 상쇠 부쇠의 활약이 돋보인다. 쌍둥이 자매의 수다처럼 밀고 당기고 던지고 받는 쇧가락이 전체 판놀음에 재미와 활력을 주고 있다.

김도연 강사

두 분이 실제로 친하시고요. 그런 노름을 짜놓는다고 해도 다들 그렇게 재밌게 놀지는 않아요. 그런데 두 분은 신명이 많아요. 놀고자 하는 에너지도 넘치는 분들이라 그냥 툭 던져놓으면 신나게 놀고 또 전체 판에 신명을 전파시키죠. 온 힘을 다 쏟아내도 모두 다 즐거워하세요.

또 우리 단원들이 다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상쇠님이 만약에 공석이라고 하면 부쇠가 상쇠 역할을 하도록 교육했어요. 장구나 북도 마찬가지로요. 수장고, 수북이 빠지더라도 각 파트가 돌아갈 수 있게끔 따로 교육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각 악기의 수장들에게 책임이 더 있지만 내년 쯤엔 각 악기 수장을 단원이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모두 올해 가능해진 일이에요. 굉장한 성장이죠. 작년에는 판을 바꾸느라 정신이 없었고 단원들은 바뀐 내용에 적응하기 바빴는데 올해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고 역할이 정착된 겁니다.



오십천 풍물단은 판놀음에서 연풍대, 엮어빠기(다리 들고 엮어지는 동작) 같은, 각자 팽이처럼 돌면서 악기를 치는 고난도 동작도 모두 척척 소화하고 있다. 걸으며 치는 법도 어려운데 악기를 치며 도는 동작까지 해내는 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했다.

김도연 강사

동작하면서 장단 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움직이면서 치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데 나이도 60, 70되는 분들이 악기를 치면서 도는 동작은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지역에선 안할 겁니다. 처음엔 ‘진짜 어지러워서 못하겠다’ ‘어지러운데 왜 안하던 걸 하나?’고 얘기하는 분들 많았고 ‘하던 것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 없다’고 버티는 분도 있고...

하지만 제가 여기 온 게 ‘안하던 거 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단장님, 상쇠님이 설득하고 엄청 애쓰셨어요. 근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들 잘 하세요. 놀랍죠. 오십천 풍물단 만의 기량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사실 ‘엮어빠기’ 동작은 띠를 매고하면 정말 예뻐요. 돌면서 오색 띠가 활짝 펼쳐지면 꽃송이가 피어나는 것 같이 정말 예쁜 동작이에요.

재미있는 게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그런 동작을 하다보면 원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 시키지않아도 어른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원형 대열을 좁혀 들어가요. 그게 내공인 거죠. 이제는 제가 뭘 요구하는지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문화재단 수업이 2년 차가 되면서 서로 막혀있는 부분이 해소되고 서로 눈빛만 주고 받아도 알게 되는 그런 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아 열심히 달려왔다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보람보다 아쉬움이 더 많은 한 해.
영덕읍 오십천 풍물단은 도도한 오십천의 저력을 닮은
영덕 풍물의 본류로서 더 성장해 갈 것이다.

영덕읍 오십천 풍물단



김순옥 | 김명숙 | 박인숙 | 김숙향 | 서진애 | 황숙자 | 김금순 | 허소영
김영구 | 김정순 | 권선희 | 김춘석 | 조경현 | 박미례 | **김도연 강사**

쇠 | 징



김영구 | 조경현 | 박미례

북



박인숙 | 김숙향 | 김춘석 | 김금순 | 서진애 | 허소영

장구



김정순 | 김명숙 | 김순옥 | 권선희

영해면 풍물단

역사적 자긍심과 자부심 드높은 영해면. 가장 중심인 성내리 옛 읍성 안에 자리한 영해면사무소. 매주 수요일, 일과를 정리하는 시각 저녁 7시마다 100년 전 영해를 달구었던 만세 함성만큼 뜨거운 풍물의 잔향이 쏟아진다.

영해면 풍물단 역시 20여년 전 농협 소속 농가주부단부터 출발했다. 축산, 영해 농가주부단이 합병되면서 영해면 단독 풍물단은 없어졌다가 7년 전 영해면 풍물단이 독립 단체로 새 출발했다. 다시 단원 모집이 시작됐고 현재 풍물단이 결성된 것이다.

여기엔 20여 년 구력을 가진 이전 멤버는 거의 나가거나 2진으로 물러섰고 신규 회원이 대부분이다. 총 회원은 30여 명인데 20명 정도가 신참이다. 이곳에서 처음 풍물을 접하는데도 흡수가 빨라 벌써 실력이 탄탄하다.

지도는 강구면 풍물단을 이끌고 있는 방영식 강사가 맡고 있다.





방영식 강사

영해면 풍물단은 강구면 풍물단과 함께 작년 11월 수업을 시작해서 10개월 됐어요. 영해면은 오랫동안 풍물을 해오신 실전의 고수들이 많아요. 반면 풍물단에는 이제 막 재미를 붙이고 열의를 보이는 신입회원들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 간의 결합도가 떨어지는 게 아쉽습니다.

그런데 희안하게도 행사에 이 실전의 고수들이 등장하면 판을 장악해서 끌고 가는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사라진 노병들이 대거 등장해서 판을 휘젓는 거죠. 신참들의 신선한 에너지와 내공 두터운 고수들의 저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풍물판이 활기차게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팀도 이 현장의 엄청난 에너지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신규팀을 어떻게 결합시키고 끌고 가느냐가 영해면 풍물단의 관건입니다. 결국 영해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합니다.

백진옥 단장

수업할 때는 체계적으로 배우는 단계잖아요. 선생님이 만족을 못하고 자꾸 반복을 하니까 지루할 때도 있는데 행사에 나가면 선생님에게 배웠던 걸 가지고 마음대로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수업 때 잘 배워야 해요. 다들 무대 체질이라 실전에 강해요. 저는 장구를 하는데 늘 어려웠어요. 워낙 장구를 못쳐서 설장구 수업도 따로 받았어요. 그걸 하고나니 눈이 뜨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밖으로 많이 다니다보니 밤에 수업하러 나올 땐 남편이 가끔 싫은 소리도 해요. 그래도 여기 나와서 요란하게 한번 치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땀도 짹 흘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진규 단원 (67)

우리는 면사무소 소속이라 복사꽃 축제나 영덕군민체육대회나 모두 나가야 하고 여름에 해변마라톤, 면사무소에서 하는 행사까지 다 출동합니다. 그 외엔 초청 들어오면 가는거죠. 수업은 수업이고 행사 참여하는 건 현장 실습하는 거니까. 우리 회원들은 평소보다 실습할 때 더 많이 나와요. 수업에 한 15명 정도 나온다면 현장은 20명씩 나오니까 어찌 보면 실전을 더 좋아한다고 봐야죠.



강경자 단원 (55)

풍물단 나온 지 2년 됐어요. 강사님이 꼼꼼하게 잘 가르치세요. 지겹지 않고 수업이 너무 재미있어요. 틀려도 성질 한번 안 내고 반복 반복 해주세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오게 되고 2시간 화끈하게 치고 나면 답답했던 속이 다 뚫리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희열을 느끼는 타고난 실전의 달인들이지만 동시에 실력을 더 쌓기 위해 여기저기 배움을 청해 다니는 경우도 많다.

여진규 단원 (67)

2019년 영해면 풍물단에 들어왔어요. 풍물 한 지 10년 됩니다. 농협 농가주부단에서 면으로 관리가 넘어올 때 합류했고 여기서 풍물을 처음 배웠어요. 쇠는 가락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래도 처음부터 쇠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계속해 왔어요. 그만큼 보람도 있어요. 풍물단 안에선 악기별로 따로 집중해서 배우긴 어려워요. 그래서 뽕과리 특강도 다닙니다. 특강 할 때 제대로 배우는 거죠. 뽕과리 배우는 사람이 27명 정도 됩니다. 초보도 있는데 2시간 동안 뽕과리만 딱 하나까 너무 좋아요. 쇠만 모여서 치니까 에너지도 완전 다르죠. 연습도 하고 모르는 것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밖으로 분출하는 신명과 흥, 안으로 축적되는 배움의 열기.
상반된 두 가지 에너지가 공존하는 영해면 풍물단.
긴 호흡으로 성장의 잠재력을 지켜본다.

영해면 흥물단



김영순 | 최순복 | 강경자 | 권복남 | 김정춘 | 박차수 | 신난량 | 전금주
김외순 | 여진규 | 백진옥 | 김경순 | 백설희 | 박구만 | 김명중 | 방영식 **강사**

북



전금주 | 백설희 | 신난량 | 최순복 | 강경자 | 박차수 | 김정춘 | 권복남

쇠 | 징



김경순 | 김외순 | 여진규

장구



김영순 | 박구만 | 백진옥 | 김명중

지품면 도화 풍물단

영덕의 청정 1번지 지품면, 복숭아와 자연산 송이의 산지로 유명한 이곳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가 되면 사물 소리 진하게 울리는 풍물의 마을이 된다.

20년 전 농협 농가주부단에서 면으로 풍물단이 넘어온 지 5년. 지품면 도화 풍물단은 2019년 3월 27일에 재창단했다. 꼭 하고 싶다는 사람만 모아 새 출발을 선언했는데 당시 결합한 인원은 29명. 모두 풍물을 하고 싶은 열망을 안고 살다가 단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삼삼오오 모여든 것이다. 이들이 십시일반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풍물을 배우다 재단의 지원이 시작되면서 전열을 재정비한 것이 2년 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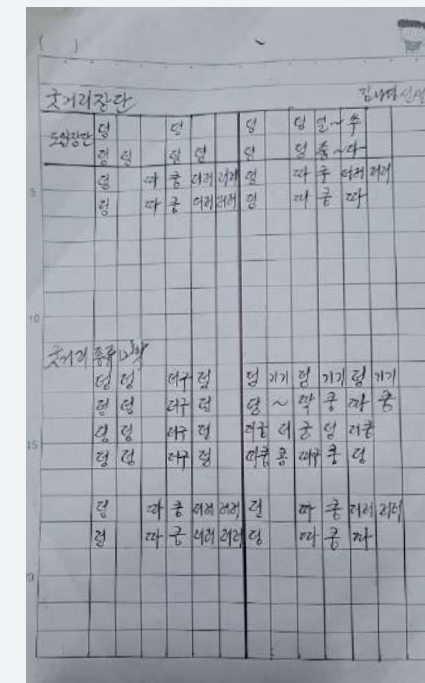


풍물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모여 유지해 온 단체인 만큼 강사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열정을 이어오고 있다. 올 한해 지품면 도화 풍물단을 이끌어온 김나영 강사의 감회는 남다르다.

김나영 강사

지품은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만 모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학구열이 높아요. "선생님 저희 굿거리 좀 알려주세요." 하는 요청이 많으시고요. 수업을 하면 그걸 채보를 다 하셔서 단톡방에 올려서 공유하세요.

본인들이 스스로 채보를 해서 각자 복습을 하시는 거죠. 배움에 대한 열망이 정말 높아요. 계속 뭔가 하고 싶어하시고 먼저 요구하고 찾아오세요. 제가 제시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할 수 있다! 이런 투지, 열망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채보한 악보





지품면 도화 풍물단의 산증인이기도 한 배호경 단장은 풍물단의 든든한 언덕이다. 연습을 하거나 행사를 나가더라도 단원들의 뒤를 지키며 열심히 징을 울린다. 그는 11월 당시 위암 수술을 받은 지 두 달째였다. 위를 1/3 절제하고 7kg이나 살이 내린 상태였지만 한바탕 판놀음이 돌아가면 다시 징을 챙겨 들고 대열을 누빈다. 암 수술 따위가 나의 열정을 막을 순 없다는 듯 노장의 역량을 과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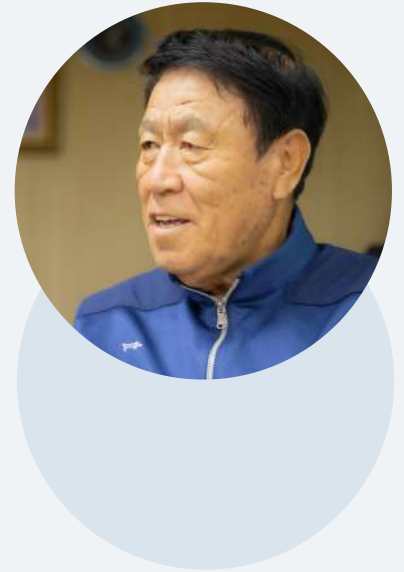
올해 들어 지품면 도화 풍물단은 젊은 바람이 불어 면모를 일신했다. 원래 농가주부단을 했던 멤버는 한 둘만 남고 전부 새로운 단원으로 채워졌는데 특히 올해 30대, 40대 단원들이 입단해 팀에 활력을 더했다. 34세 다문화 주민에서 최고령 74세까지 다채로운 단원들이 모여 풍물을 치며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배호경 단장은 이 모든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럽다고 말한다.

배호경 단장

올해 가장 큰 성과는 뭐니뭐니해도 단원들이 젊어진 거죠. 상쇠가 장단을 쳐도 잘 모르더니 지금은 잘 따라와요. 젊은 분들이 머리로 좋고 열정도 있어서 많이 늘었어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단체에 들어오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 흐트러지면 안돼요. 좋은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풍물은 그 안에 룰이 있어요. 제멋대로 제 흥에 겨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풍물 하는 사람들을 광대니 뭐니해도 기본 예가 있어요. 강사님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이재봉 단원 (상쇠, 65)

대구에서 직장 생활하다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와 단장님과 함께 지품 도화 풍물단을 만들었습니다. 대구에서 풍물단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쇠를 맡아서 활동해 왔죠. 창단 후 두 달 동안 연습해서 5월 복사꽃 축제에 나가 상도 받았습니다. 올해는 옛날부터 오래 활동하던 분들이 나가시고 젊은 신입 단원들이 많이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팀 분위기도 젊어졌고요, 열심히 해보려는 분이 더 늘었습니다.



이번 신입단원 중에는 외지에서 풍물을 배우고 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악기를 처음 잡아보는 단원이 많았다. 특히 난생처음 장구를 만져보는 다문화 여성 회원의 경우도 몇 달 만에 행사에 나갈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



신숙희 단원 (55.장구)

지품 도화 풍물단은 작년부터 합류했어요. 남편 따라 영덕으로 온 귀촌 3년 차 주부인데요. 남편은 작은 과수원을 하고 저는 면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엔 궁이 뭔지 채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 와서 장구 잡는 법부터 배웠어요. 저는 그냥 강사님이 가르쳐준 대로만 했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혼자서 꿈따 꿈따 해보고, 유튜브에서 장단 찾아보고, 언니 집에 가서 판 두드리면서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강사님 만나서 1년 만에 많이 늘었죠.

여러 행사에 나가면 모든 시선들이 저희를 보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뿌듯함도 막 생겨요. 그럼 멋있는 척도 하고, 못 치면서도 잘 치는 척하고...나도 모르는 무대 매너가 나오는 거예요. 뭔지 모를 에너지가 저절로 확 올라오기도 하고요. 지금은 한창 걸음마를 하는 때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신명나게 놀면서 땀 짹 흘리고 집에 가서 샤워하면 정말 개운하죠.

김수옥 단원 (39.장구)

군포에서 살다 2013년에 영덕으로 귀촌해서 출산도 했습니다. 올 2월에 아는 분이 풍물단 같이 해보자고 제안해서 입단했어요. 연습 몇 주하고 바로 대계 축제에 참여했어요. 곧장 현장으로 나간 거죠. 저는 사회인 동아리에서 앞은반(앞아서 치는 풍물)을 한 적 있었는데요. 장구를 놓은 지 10년은 됐고요. 이렇게 서서하는 풍물은 처음인데 정말 재밌어요. 이전에 했던 앞은반은 가락을 정교하게 맞춰가는 재미가 있었다면 지금 서서하는 선반은 사실 흥이 더 나고요. 서서 움직이니깐 땀도 나고 좋아요. 저는 귀촌해서도 육아를 하느라 거의 바깥 활동 안하고 지냈거든요. 장구나 사물 악기에는 줄곧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큰 맘먹고 입단했어요. 여기 와서 첫 날 10년 만에 장구를 쳤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내가 좋아했던 걸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짜릿하고 좋았어요. 저는 수업할 때 강사님을 뚫어져라 봐요. 강사님이 손을 어떻게 쓰는지 지켜보는 것도 좋고요. 악기 치시는 모습이 마치 공연 같아서 자주 감동을 받아요. 앞으로도 더 배우고 싶어요.





이수진 단원 (34. 장구. 베트남)

올 6월에 입단했어요. 한국전통음악에 관심있어서 풍물단에 들어왔어요. 장구는 처음이지만 선생님만 따라 했어요. 풍물을 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게 좋아요. 팀 분위기도 너무 좋고 잘 챙겨주세요.

**이 모든 올해 성과를 디딤돌 삼아
내년에 거는 기대도 크다.**

배호경 단장

행사를 하다보면 9개 면이 거의 똑같아요. 장단도 비슷하고... 내년에는 지역 특색을 살려서 우리만의 판을 짜보고 싶어요. 김나영 강사님이 열정적으로 잘 가르치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퍼포먼스가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 지품 도화 풍물단의 이름을 달만한 우리 농악을 강사님에게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꼭 만들고 싶어요.

이재봉 단원 (65.상쇠)

영덕에는 사물단이 없어요. 여기 인원 중 5-6명만 있으면 사물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물팀을 하나 만들어서 영덕군 내에서 유일한 실버 사물단 만들고 싶은 것이 제 꿈이에요. 강사님에게 영남 사물 길놀이를 조금 배웠어요. 여기 자원으로 사물팀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신숙희 단원 (55.장구)

내년에는 행사가 조금 더 잡혔으면 좋겠고, 저희 단체가 많이 알려졌으면 해요. 영덕에도 풍물 경연대회가 생겨서 우리 기량도 올리고 인정도 받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젊은 피 수혈로 재충전한 지품면 도화 풍물단.
단장 이하 단원들 모두 세대를 뛰어넘어 신명으로 하나가 되었다.
하늘과 땅을 흔들고 사람을 웃고 울리는 풍물 광대의 길,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길동무가 되었다.

지룸면 도화 풍물단



김수옥 | 이수진 | 김미경 | 신숙희 | 임선영 | 손용창
배호경 | 김영란 | 배삼연 | 이순희 | 이재봉 | 신순희 | 유말순 | **김나영** 강사

북



손용창 | 신순희 | 배삼연 | 김영란 | 유말순

쇠 | 징



이재봉 | 이순희

장구



임선영 | 신숙희 | 이수진 | 김미경 | 김수옥

창수면 풍물단

창수면은 영덕군 중 가장 면적이 큰 면이다. 산지인데다 평균 연령도 가장 높은 곳. 하지만 풍물의 열기는 여타 읍면 풍물단과 다르지 않다. 2년 전 재단의 지원이 시작됐고 이현석 강사가 매주 경주에서 달려와 목요일 수업을 이끌고있다. 50대에서 60대까지 총 인원은 30여 명이지만 평균 15명 정도 꾸준히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다. 단원의 구성도 예전부터 풍물을 해오던 기존 단원들과 올해 들어온 신참 단원들이 반반씩 섞여 분위기를 일신했다.



이현석 강사는 기본 자진모리 휘모리 장단을 하다 특색있는 장단을 넣고 싶어 작년부터 진주12차 농악의 길군악 부분을 가져와서 수업하고 있다. 진주 12차농악은 ‘진주·삼천포 12차농악’으로 불리는데 우리나라 수많은 농악 가운데 가장 먼저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된 타악 합주음악이다. 그중 길군악은 진주.삼천포 12차 농악 중 4차 가락이다.



이현석 강사

진주 12차 농악은 걸으면서 칠 때 신나는 장단이거든요. 쉬워요. 그래서 쉽고 특색 있는 것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죠. 그런데 앉아서 잘하시는데 서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어려워하세요. 지금은 선반, 앉은반을 번갈아 하고 있고 새로운 단원들이 앉은반에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서서 해보고 있어요. 악기는 일단 어렵긴 하지만 장구를 먼저 합니다. 장구를 먼저 배우면 북, 팽과리도 좀 수월하거든요. 모든 단원들이 악기를 골고루 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죠. 처음에는 장구를 배우고 차차 자기 악기를 찾아가는 걸로 진행하고 있어요. 악기별로 따로 수업은 못하지만 합주하면서 개별로 들어가고 있죠. 움직이는 것도 기본은 되는데 길군악이 생소하기 때문에 아직은 못 외워서 완전히 습득했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신입회원이 세 분 더 들어와서 그분들 진도 나가면서 다시 복습 중이에요. 어차피 훈련은 무한반복이죠.



남명심 단위 (62.상쇠)

제가 풍물을 시작한 건 20년 전이에요. 40대 부터 풍물 했고 쇠를 한지도 한 20년 되어요. 그래도 확실하게 기본을 못 배워서 지금도 썩 잘 한다고는 못해요. 농촌 일이 항상 그렇잖아요. 겨울에 눈이 와야 좀 쉬거든요. 면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마을별로 면에서 행사 할 때 와달라고 하는데 다 응하고 싶어도 부담이 있죠. 저녁에 어른들 식사 챙겨드리고 신랑 밥 주고 달려오면 막상 우리는 굶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사과도 갖고 오고 고구마도 삶아오고 그렇게 유지를 해왔어요. 우리는 서로 그런 배려가 있어요. 각자 싸온 걸로 요기 하면서 다진 팀워크이죠.



옛날 20년 전에 우리가 처음 풍물을 배울 땐 차가 없어서 아는 사람 화물차 뒤 짐칸에 얻어 타고 추우니까 모자 눌러쓰고, 그러고 와서 배웠어요. 오로지 배운다는 일념에 왔죠. 어디서 지원받고 그런 것 없어도 뭔가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컸어요. 초창기에는 한 40여 명 모여서 했죠. 그러다 각자 사는 게 바빠서 점점 숫자가 줄었어요.



주순환 단위 (초대회장. 정)

저는 과수 농사를 하는데 풍물한 지는 20년이 넘었어요. 예전엔 우리가 각 2만원 3만원씩 회비를 내서 신발도 사 신고 했어요. 우리끼리 밥도 한 끼 못먹었죠. 재단이 지원해주면서 실력 있는 선생님이 오셔서 너무 적극적으로 잘해주세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절대 결석하면 안되죠. 우리 팀은 특히 상쇠가 머리가 비상해서 참 잘해요. 상쇠만 잘하면 따라가면 되거든요.

작년 연말 창수면 풍물단을 맡은 김영희 단장은 원래 창원에서 살다 10년 전 남편 따라 귀촌한 경우다. 풍물단이 있단 소식을 듣고 장구를 배우고 싶어 물어 물어 입단했고 약기도 이곳에서 처음 배웠다. 수년간 총무로 단체 살림을 책임져오다 최근 단장을 맡은 터라 어깨가 더 무겁다. 고민도 많고 고충도 크다.





김영희 단장

모두 바쁘다보니까 인원 모으는 게 제일 문제예요. 농사철이라고, 추수철이라고, 김장철이라고 나오기 힘들어 해요. 기존 오래된 상쇠, 부쇠 이런 분들은 실력이 되는데 신입들은 전부 요양보호사하고 일을 하니까 시간 빼기가 어려워요. 대신 행사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모두 실전에 강해요.

제가 처음에 올 때만 해도 문화재단의 지원이 없었거든요. 행사가 있으면 한 일주일 앞두고

경주에서 선생님 모셔다가 잠깐 맞춰보고 본 게임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혼자서 인터넷을 보면서 독학했어요. 풍물이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장구도 직접 내 걸로 사서 연습했어요. 장구가 어렵더라고요. 복잡하고 손동작을 많이 써야하니까. 지금은 신입이 들어와도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니까 배우기가 쉽지요. 신입들 들어오면 지금 조건 좋을 때 잘 배워라. 늘 강조해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못 하니까 많이 미안하고 아쉽죠.



하지만 단원들의 걱정과는 달리 창수면 풍물단에 대한 이현석 강사의 칭찬은 대단하다. 다들 농사일이나 집안일에 시달리는데 그래도 늦은 밤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큰 일이라고, 모두 열의도 높고 재밌어하는 덕분에 작년보다 올해는 수준이 더 향상됐다고 후한 평가를 아끼지 않는다.

이현석 강사

작년보다 올해 진짜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작년엔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서 장구 잡는 법부터 기본 타법부터 했는데 지금은 숙련된 분들도 있고해서 진도가 빨라졌어요.

이제 자진모리 치다가 연결 장단으로 넘어가는 것도 눈치껏 보고 잘 따라오세요. 제가 항상 '너무 정확하게 넘어갈 필요는 없다.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된다'고 해요. 올해는 조금씩 숙련돼가는 과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창수면 면민 체육대회 할 때도 한 5분 6분 정도 공연은 너끈히 해내셨어요. 작년 영덕 대게 축제 퍼레이드에도 참여해서 잘 맞추고, 잘 하셨습니다. 실전에 강한 팀이에요. 공연 나갈 때마다 실력이 붙는 것 같아요.



단원들 또한 매주 목요일 저녁 멀리 경주에서 찾아와주는 강사에 대한 고마움이 크다.

김영희 단장

매주 먼 길을 하시는 강사님에게도 미안해요. 멀리서 오셨는데 8명, 9명 이렇게 앉아있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막 분위기 띄우려고 하지만 선생님, 표현은 안 해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수업은 정말 꼼꼼하게 자세히 알려주세요. 섬세하게 알려주시니까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초보도 알아듣기 쉽게 귀에 쪽쪽 들어오게 가르치세요. 강사님은 자꾸 외워라 하는데도 사실 처음엔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냥 몸이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올들어 단체가 눈에 띄게 안정되면서 오래 활동해온 멤버들에겐
소박한 희망사항도 생겼다.

‘제대로 된 천 고깔모자를 쓰고 멋지게 풍물을 보여주고 싶다.’

‘청년들이 들어와서 팀에 활력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합을 맞춘 강사님과 더 오래 지속적으로 가고 싶다.’

강사, 단장, 단원까지 팀의 결속을 바라는 모두의 한 마음으로
창수면 풍물단의 연습실은 오랫동안 불 꺼지지 않았다.

창수면 흥물단



홍석만 | 황윤숙 | 석경순 | 김영희 | 주순환 | 박현옥 | 심은경
조영숙 | 강순애 | 류정예 | 김외남 | 최근애 | 신선미 | 유복순 | 남명심 | 이현석 강사

북



강순애 | 김외남 | 조영숙 | 최근애 | 신선미

쇠 | 징



심은경 | 홍석만 | 주순환 | 유복순 | 남명심 | 박현옥

장구



황윤숙 | 석경순 | 김영희 | 류정예

축산면 풍물단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축산면사무소가 다시 들썩인다.

25년 전 농협 농가주부풍물패에서 출발한 축산면 풍물단은 작년부터 재단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올해 김구대 강사가 합류하면서 재충전을 하는 중이다.

구력 20년 이상 된 예전 멤버는 상쇠, 부쇠, 단장 세 사람. 이들이 주축이 되어 전체 19명 단원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대부분 단원들은 60~70대. 주로 축산항, 도곡리 인근에서 매주 늦은 시각에 축산면사무소에 모여 2시간씩 풍물을 익히고 있다.

복사꽃 축제나 물가자미 축제 같이 큰 행사가 있을 때는 19명에서 20명 정도가 2주간 바짝 연습해서 참가한다. 또 축산면 풍물단원 중 5~6명은 면에서 진행하는 설장구 수업에도 참여해서 기량을 연마하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구대 강사가 축산면 풍물단을 맡은 건 올 초 2월부터, 11개월째다. 11달 동안 함께 해온 강사는 ‘동네 행사에 적극적이고 자부심이나 책임감도 강해서 애향심 하나는 최고!’라며 축산면 풍물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김구대 강사는 수업 초부터 울산 달리농악을 접목하고 있다.

그는 왜 영덕에서 울산 달리농악을 시작했을까?





김구대 강사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단원들에게 무엇 무엇을 배웠는지 여쭙봤어요. 골고루 많이 하셨대요. 난타도 하고 설장구도 하고 사물놀이도 하고 전라도식 길놀이도 배우고 경상도식도 해보고... 제가 '영덕이나 축산에는 옛날부터 해오던 마을 농악이 있느냐?' 여쭙보니까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일단 영덕에는 고유의 농악이 없고 제가 울산 출신이니 울산 달리농악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달리 농악은 두레 풍물(마을에서 주로 하는 풍물)에서 벗어나서 도시 풍물 그리고 뜰패들이 하는 전문 풍물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보통 지역에서 아마추어로 움직이는 분들은 그냥 두레패

라 하고 전문 예인 집단을 뜰패라고 하는데 지금 울산 경우에는 농경지가 거의 없어져서 두레패 형성이 안돼요. 그래서 거의 뜰패(전문예인 집단)로 전환 중이어서 가락이나 동작이 약간 고난도예요. 그래서 그걸 쉽게 하실 수 있게끔 발췌해서 수업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계획한 진도상 보면 북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팽과리, 징은 따라오면 되거든요. 사실은 장구가 주선율이어서 제일 어려워요. 장구를 마스터하고 나면 나머지는 쉬워요. 북은 그냥 기둥만 잡아주면 되니까요. 다른 악기를 배울 때마다 반은 팽과리 치고 반은 장구 치고 바꿔서 한번 하고. 지금 북 할 때도 이제 세 파트로 나누는 거죠. 팽과리 중간에 놔두고 이렇게 세 팀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단원들이 워낙 구력이 있어서 가능해요. 일주일에 두 번 수업을 하면 학습 능력이 부족 올라갈텐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고충은 있죠.

축산면 풍물단은 20년 꼬박해 온 단원도 있고 10년, 5년 경력을 가진 단원도 있고 막 들어온 신입까지 뒤섞여 있지만 김구대 강사가 집중하는 건 한 가지다.



김구대 강사

개인적으로 하나 하나 다 될 때까지 하는 반복하는 스타일은 아니예요. 저는 그냥 묻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대충 같이 가자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쪽 일관된 분위기를 따라가다 보면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연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너무 개인으로 짝 가버리면 따로 놀게 되죠. 어우러져서 다 같이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합니다. 좀 안 돼도 끝까지-한가지 기운으로 같이 가는 것.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이런 방식을 단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김위숙 단장

축산면 풍물단은 초보자는 없고 거의 10년 이상 풍물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4~5년 된 사람도 있고요. 새로운 강사님이 오셔서 올해 새로운 장단을 배웠는데 재밌어요. 이끌어 주는데로 하다 보면 추임새가 바로 나와요.

박정숙 단원

처음에는 채도 잘 못 잡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잘 쳐요. 요즘은 선반, 걸어나가면서 치는 것도 배우고 있는데 신명이 있어서 다 잘 해요. 우리는 20년 이상 풍물을 오래 했지만 다시 배우니까 기본기가 다져지는 것 같아요. 울산의 달리농악을 배우는데 우리는 별로 힘든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하는 사람은 어려워 하죠.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강사님은 우스개로 외우면 안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칠 게 없다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만 모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최현식 단원

낮에는 산불감시원을 하고 밤에는 풍물패를 하지요. 징은 여기서 배운 지 얼마 안됩니다. 풍물패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어릴 때 시골 마을에서 모여 놀던 기억 때문이에요.

어릴 때는 생각 없이 구경만 했는데 직접 풍물을 해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흥이 되살아나



고요. 풍물 소리에 맞춰서 동네 어른들이 춤추던 모습도 생각나고 좋습니다. 물론 손하고 발이 따로 놓고 마음 같이 안 따라줘서 힘들지만 부지런히 익히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달리농악은 울산에서 직장생활 할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 와서 강사님에게 직접 배우니까 새롭고요.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제 외가가 전주예요. 그래서 전주대사습놀이도 봤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풍물을 직접 해보니까 아직 실력은 없지만 재미가 있어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축제 때 농악을 영상을 봤어요. 아직 배우는 단계지만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몇 번 풍물을 하기도 했어요. 도곡2리에 사는데 어버이날 같은 마을 행사가 있을 때는 나가서 풍물을 치곤 합니다.

류순옥 단원

축산향초등학교 근처에 삽니다.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요. 풍물 한 지는 농가주부단부터 한 10년 쯤 됐어요. 내가 처음 입단했을 때는 우리끼리 한 번 씩 모여 치고 그랬는데 재단과 연결되면서 많이 활성화됐죠. 김도연 강사님께 설장구도 배우고 있어요. 풍물 한지도 한 10년 됐고 이젠 70대라 은퇴 할까 생각도 했는데 회원이 많이 없으니까 행사 때마다 부르고 또 부르고 해서 지금까지 왔네요. 풍물은 뭐니뭐니 해도 스트레스 풀기에 좋고요. 교우 관계도 좋아서 계속 할 생각입니다.



11개월 동안 축산면 풍물단을 이끌어온
김구대 강사는 올해의 성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김구대 강사

풍물은 라이브잖아요. 라이브라서 끌고 가는 사람이 한 서너 명 정도는 딱 있어야 줘야 해요. 그래야 지속력을 가지는데 그런 분이 올해 서너 분 나왔어요. 그게 제일 큰 성과죠. 이렇게 기둥을 잡아주는 리더그룹이 형성된 게 올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사실 단원들 대부분 연세가 있어서 장단을 외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서너 분 정도가 장단을 거의 다 외우셨어요. 이 서너 분이 합주를 하면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죠. 상쇠, 부쇠, 단장님, 그리고 장구 한 분 해서 네 분이 탄탄한 리더그룹이 됐어요. 든든합니다.

단원들 역시 내년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잊지 않았다.

박정숙 단원

내년엔 지금 배우는 달리농악을 마스터해서 우리 회원들끼리 진을 한번 밟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풍물 특히 팽과리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흡음, 방음이 잘된 장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애항심 그리고 자부심으로 뭉친 축산면 풍물단,
단원 하나 하나가 힘을 합쳐 오래된 나이에 위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축산면 풍물단



류금숙 | 류순옥 | 이춘옥 | 김순단 | 윤금란 | 황숙희 | 신현숙
김남미 | 최현식 | 안춘연 | 박정숙 | 김위숙 | 김구대 강사

쇠 | 징



안춘연 | 최현식 | 박정숙

북



김위숙 | 윤금란 | 김순단 | 신현숙 | 황숙희

장구



류금숙 | 이춘옥 | 류순옥 | 김남미

내고 달고 맷고 즐고

_풍물의 세계

우리 선조들은 좋은 일도 꺾은 일도, 신날 때도 고될 때도 풍물을 치며 신명으로 하나가 되었다. 팽과리와 징, 장구와 북, 쇠와 가죽을 두드리며 마을의 화합과 결속력을 다졌고 동시에 개인은 신명의 기운으로 몸과 마음에 웅이진 잡념을 깨뜨리고 샅된 기운을 훌훌 풀어냈다.

막힌 곳을 뚫어주는 풍물은 그래서 해원의 소리이고 해방의 몸짓이다.
터와 인간, 하늘을 이어주는 신바람의 언어다.

내고 달고 맺고 풀고

_풍물의 세계

풍물은 풍장, 두레, 굿, 메구, 걸궁, 걸립 등 유래와 목적에 따라 다른 용어로 불린다. 풍물굿에서 강조하는 원리는 ‘내고 달고 맺고 풀고’, 기경결해(起景結解). 봄에 모를 내고 여름에 씨알을 익히고 가을에 결실을 맺고 휴식의 계절, 겨울이 오면 한 해의 회포를 푼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봄이 시작되듯이 풍물굿의 구조는 순환의 고리 속에서 무한 반복된다. 전통 풍물굿은 무질서한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일정한 구조와 체계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풍물의 기본이면서 나아가 한국 전통 예술의 핵심 요소는 장단이다. 풍물은 뿔과리가 앞장서고 북과 장구, 징 소리가 더해지면서 장단과 흥이 점점 고조되는 흐름으로 달려간다. 굿거리 장단인 “덩기덕 쿵 더러러러”는 감아 도는 기운이며 뒤에 오는 “쿵기덕 쿵덕”은 풀어주는 기운이다.

이처럼 풍물 장단은 내고, 달고, 맺고, 푸는 기운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이는 사람의 들숨, 날숨과 음양의 조화가 다양한 리듬으로 표현된 것이 우리의 장단이라고 정의한다. 감정이 표출되어 목소리로 나오면 창(唱), 추임새가 되고 몸짓으로 풀리면 춤, 악기로 풀어내면 풍물놀이 가 된다. 장르가 다를 뿐 그 바탕에는 ‘내고 달고 맺고 푸는’ 기운이 도도히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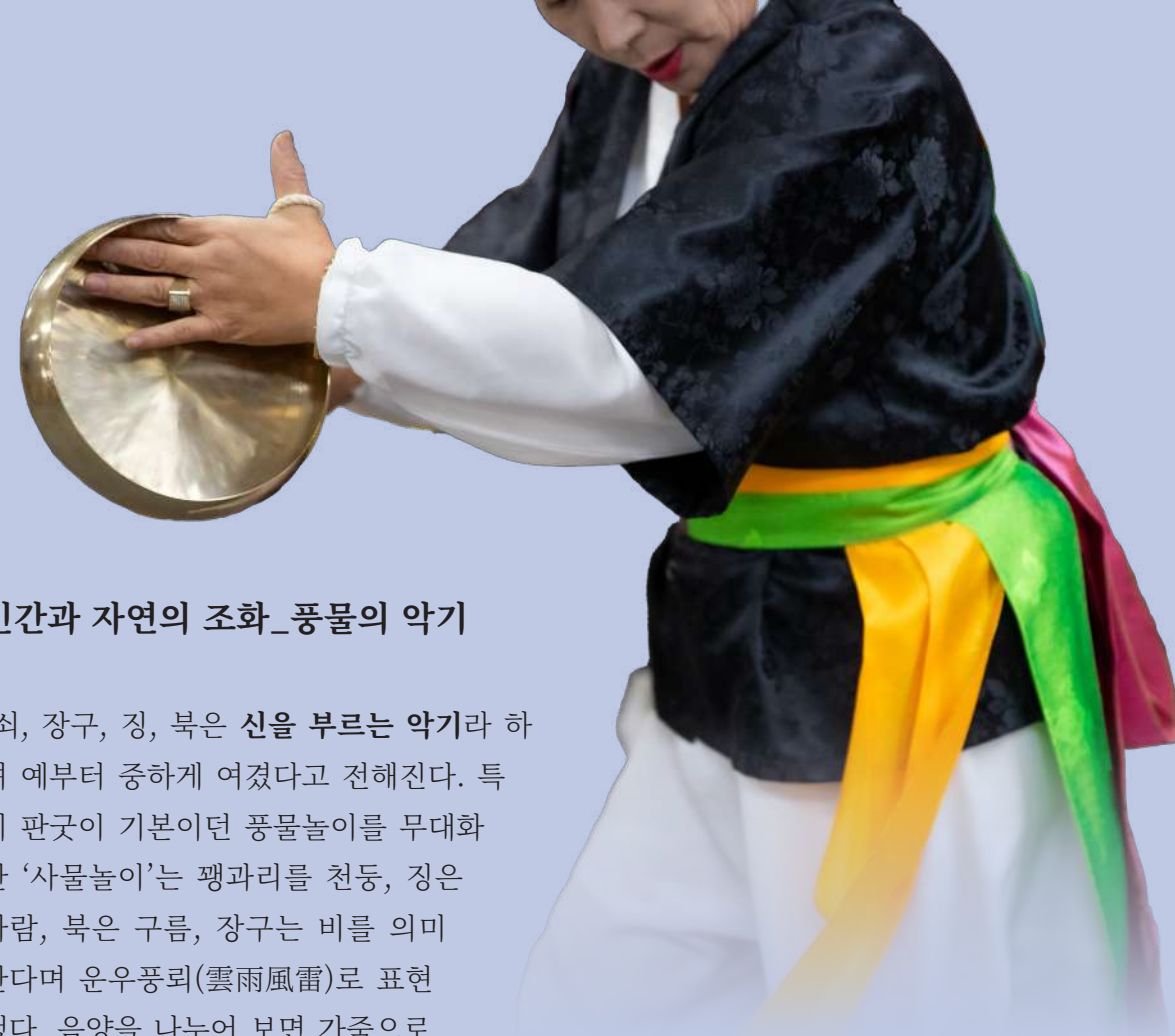


인간과 자연의 조화_풍물의 악기

쇠, 장구, 징, 북은 신을 부르는 악기라 하여 예부터 중하게 여겼다고 전해진다. 특히 판굿이 기본이던 풍물놀이를 무대화한 ‘사물놀이’는 뿔과리를 천둥, 징은 바람, 북은 구름, 장구는 비를 의미한다며 운우풍뢰(雲雨風雷)로 표현했다. 음양을 나누어 보면 가족으로 만든 북과 장구는 땅의 소리, 쇠로 만든 징과 뿔과리는 하늘의 소리라고도 한다.

덩치는 작지만 가장 도드라지는 소리를 내는 뿔과리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한다. 징은 천을 뚫듯하게 감은 채로 치기 때문에 소리의 여운이 길고 풍요롭다. 한 번씩 장단의 앞 박을 톡톡 치면서 전체 가락을 어머니처럼 푸근하게 감싼다.

장구는 양손에 채를 들고 치는데 높은 음이 나는 쪽을 열편 혹은 채편이라 부르고, 낮은 음이 나는 쪽을 궁편, 궁글편이라고 한다. 장단의 시작과 끝을 잡아주고 빠르기를 조절한다. 북은 뿔과리와 장구가 놀 수 있는 터를 만들고 기둥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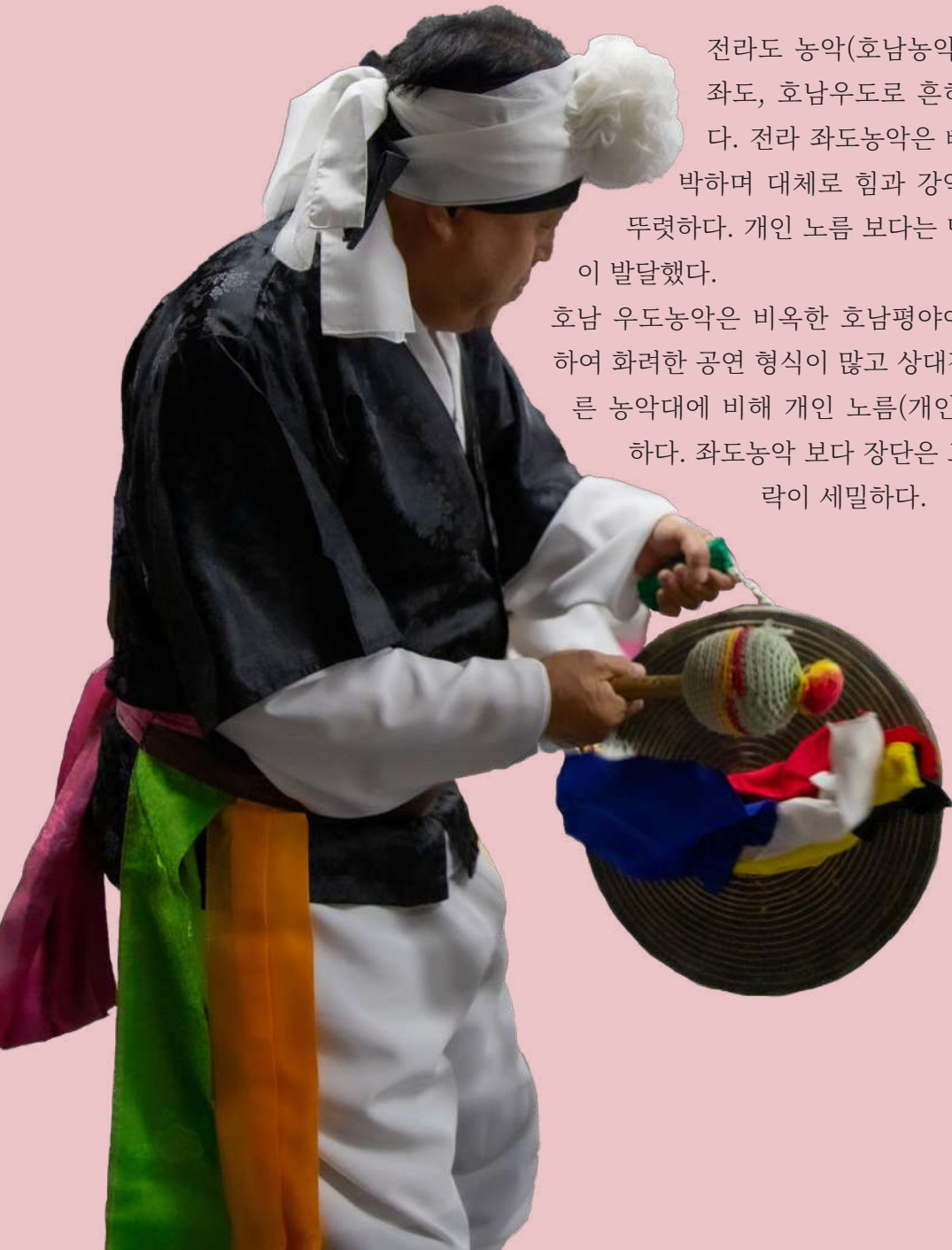


풍물놀이의 종류와 특성

풍물놀이는 크게 옷다리농악, 전라도농악, 경상도농악 등으로 나뉜다. 옷다리는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의 농악을 지칭하는 말이다. 경상도농악(영남농악)은 빠르고 힘차고 남성적인 느낌이 강하다. 장구보다 북이 위주가 되어 전투 태세로 연주 하고 진을 많이 짠다.

전라도 농악(호남농악)은 호남 좌도, 호남우도로 흔히 분류한다. 전라 좌도농악은 빠르고 투박하며 대체로 힘과 강약 조절이 뚜렷하다. 개인 노름 보다는 단체 노름이 발달했다.

호남 우도농악은 비옥한 호남평야에서 발생하여 화려한 공연 형식이 많고 상대적으로 다른 농악대에 비해 개인 노름(개인기)이 강하다. 좌도농악 보다 장단은 느리고 가락이 세밀하다.



풍물놀이의 구성 요소

풍물굿은 주로 발림, 가락, 진(陣) 세 요소로 구성된다. 먼저 발림(몸동작)은 아랫노름과 윗노름으로 구분한다. 아랫노름은 까치걸음 등 발동작, 윗노름은 주로 상모를 돌리는 동작이 된다.

두 번째 가락은 지역별로 특징이 달라진다. 평야가 많은 호남 지역은 장구 가락이 발달했고 산지가 많은 영남은 북 가락이 강세다. 남북으로도 특징이 나뉘는데 북쪽은 쇠(뿔과리) 가락, 남쪽은 가죽 계열의 악기(북, 장구)가 득세했다.

세 번째 요소 진(陣). 진은 원래 군사 용어로 양측 군대가 전투를 앞두고 배치해 있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가락에 맞춰 진풀이를 하는데 원진, 방울진, 오방진 등이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연희된다. 뿔과리를 치는 상쇠가 선두에 서서 악대의 진형(陣形)을 일렬종대, 원형 등으로 바꾸며 가락의 변화를 주도한다.



2023 빛나는 순간들

풍물은 열린 마당에서 펼치는 즉흥의 놀이,
관객과 호흡할 때 살아나는 호응의 놀이다.

하여 수업에서 뒀은 기량은 현장에서 빛을 발한다.

한바탕 마당을 구르며 뛰고 나면 성취감과 함께
자신감이 붙고 팀원 간에 동지애가 쌓인다.
실력도 일취월장 향상된다.

풍물꾼들에게 현장 공연은 가장 가슴 뛰는 순간.
신명을 쏟는 화려한 데뷔전이다.

올해도 '참 잘 놀았다!' 기억나는 행사를
9개 읍.면 각각의 풍물단이 되짚어 주었다.



병곡면 고래불 풍물단

영덕대게축제 거리 퍼레이드



“올 2월에 영덕대게축제 거리 퍼레이드 할 때 병곡면 풍물단이 공연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행사 전에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끼리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디 가시면 안돼요’ 이러셨는데 막상 공연을 시작하니깐 아예 저를 안 보셨어요.
그냥 본인들끼리 진짜 즐겁게 노시더라고요. 그때 이분들 정말 흥이 대단하고
기량도 상당하구나 많이 놀랐죠. 아무래도 타법 등 세부적인 건 고칠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워낙 오래한 내공이 있다보니 무대에 딱 서니까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생생하네요.”
_김나영 강사

복사꽃 축제



“군민체육대회 4월 복사꽃 축제 때 100만원 상도 탔어요. 그때 너무 즐거웠어요.”
_최위순 부단장

병곡면 면민체육대회



“우리 면민 체육대회 할 때 어른들 호응도가 높았어요. 풍물패하고 같이 어울려서 흥겹게 춤도 추시고
진짜 재밌었어요. 풍물이 사람을 화합시키고 하나로 어우러지게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_김옥한 단원

축산면 풍물단

2023 복사꽃 축제 | 해변 마라톤대회



“복사꽃 축제는 매년 나가고 해변마라톤대회에도 선수들 흥을 돋우기 위해 늘 나가죠.
큰 행사를 다함께 치르고 나면 실력이 향상되고 단합이 잘 돼요.
대회 나가면 축산면 풍물단이 무조건 1등이에요.”

— 김위숙 단장

괴시민속마을 마을 굿_지신밟기



“올해는 특히 괴시마을 행사가 기억에 남아요.
저는 교회에 다녀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행사 당일도 전날까지 엄청 비가 왔고 일기예보도 비 온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도 우리 광대들 보고 좋아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최현식 단원

지품면 도화 풍물단

영덕대게축제 거리퍼레이드



“영덕대게축제 때 장구 메고 준비 대열로 딱 서려고 하는데 앞에 다른 팀들도 많고
거기에 제가 있다는 게 엄청 두근거렸어요. 입단한지 한 두달 됐나?
몇 번 연습하고 바로 나간 첫 공연이었거든요. 그 벅찬 순간을 못잊을 것 같아요.”

— 김수옥 단원

군민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 할 때 거기서 우리가 막 운동장을 휩쓸고 다녔거든요. 어르신들 나와서 춤추고
정말 신나고 좋았어요. 사실 안쉬고 몇 시간을 계속 켜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목구멍이 탄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정말 재밌었고 뿌듯하고... 잊을 수 없어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다시 나가고 싶더라고요. 완전 중독 같아요.

— 신숙희 단원

창수면 풍물단

창수면 주민체육대회 행사



“올해 창수면 주민체육대회가 최고였어요.

풍물은 하다 보면 대나무 세워서 새끼줄 해놓으면 어른들이 성의껏 막 꽃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역대 최고로 많이 꽃혔어요. 진짜 반응이 좋았어요.

코로나 오고 태풍 오고 이래서 한 7년 만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시고 아주 신이 나셨어요. 창수에서 전 면민이 거의 다 나오셨어요.”

—창수면 풍물단 김영희 단장

“우리 상식이 잘해가지고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재밌게 잘한다고 박수도 많이 받았어요.

상식 부식이 합이 잘 맞아요. 오래된 초창기 멤버거든요.

앞으로는 군 축제나 주민체육대회나 행사 나갈 때 고팔모자도 쓰고

제대로 차려 입고 나가서 치고 싶은 욕심도 들고 그렇습니다.”

—주순환 단원

남정면 월봉 풍물단

남정면 주민체육대회



“올해는 큰 행사도 많았지만 9월 2일에 했던 남정면 주민체육대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우리 풍물단원들이 길놀이도 하고 22개 마을 어른들 모시고 공연을 했어요.

각 동네에 들어가서 풍물을 울리고 돌아다녔는데 집에 계시던 할머니들이 다 나오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정말 호응이 좋았어요. 풍물을 잘 유지해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드려야겠다.

한번 더 생각하게 된 하루였어요”

—강신관 단장

“올해 남정면 주민체육대회는 저희 남정 월봉 풍물단이 분위기를 다 살렸어요.

그날 공연을 하고나니 이제 월봉 풍물단이 자리를 잡았다!

주변 주민들과 사회단체장들도 인정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행사 섭외도 늘었죠.”

—유순희 단원

“남정면에 이렇게 풍물하는 데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여러분이 단원으로 가입도 하셨고요.

연주 수준도 향상되고 우리 단원들의 자존심도 쑥 올라가고... 마음이 너무 뿌듯했어요.”

—서은숙 단원

강구면 풍물단

괴시민속마을 마을 굿_지신밟기



“올해는 영해 괴시마을에서 한 지신밟기가 최고였죠.

우리 강구풍물단이 제일 늦게까지 있었지만 모두 피곤한 줄 모르겠다고, 다들 즐거웠다고 했어요.

그게 저로서도 뿌듯한 거예요. 더구나 9개 읍·면 풍물단을 거의 나와서 함께 했으니 더 신나고 경쟁도 되고 좋았어요. 거기 참여했다가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고수 선생님들이 끝까지 두드려주고, 소리도 하는 것이 대단했어요.

우리 회원도 상여 땀 흘렸어요. 귀촌한 젊은 친구인데 본인이 하고싶다고 해서 꽃상여를 땀어요.

그런 문화행사가 더 있으면 풍물단 참여도 늘거라고 봅니다.”

_박오수 단장

“참여 인원들을 어떻게 끝까지 주체적으로 끌고 갈 건지.

숙제가 남았지만 그래도 올해 성과로는 괴시마을 마을굿과 지신밟기를 꼽을 만하죠.

왜냐하면 아무도 가지 않는 한 걸음을 뗐다 라는 게 크지요.

한 걸음을 가야지 어떤 평가도 나오고 이게 좋았다 안 좋았다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앞으로 뭐가 보강돼야 되고 뭘 진짜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영덕에서 어느 지역에서도 하지 않는 큰 걸음을 걸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_방영식 강사

달산면 풍물단

영덕대게축제 거리퍼레이드

복사꽃 축제

달산면 매일2리 마을회관 준공식



영해면 풍물단

영덕대게축제 거리퍼레이드

창수면 고택 지신밟기 | 병곡면 사찰 길놀이

전국해변마라톤대회

괴시민속마을 마을 굿_지신밟기



“7월에 했던 괴시마을 지신밟기가 기억나죠. 군에서 볼 수 없는 행사잖아요.
처음 했던 거라 다들 고생도 많이 하셨죠. 영해면 풍물단이 현장에 술 걸고 식사를 준비했잖아요.
힘들었지만 다들 잘 먹었다고 맛있었다고 인사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후에 꽃상여 나갈 때 참 좋았어요. 우리 어릴 때만 봤지 성장하고는 못봤잖아요.
그거 보면서 눈물도 나고 과거 생각도 나고 그랬어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_백진옥 단장

영덕읍 오십천 풍물단

제29회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올해는 오십천 풍물단이 영덕 대표로 나가는 경북도 행사에서 경상도 가락으로 안정감 있게, 진짜 누가 봐도 잘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내셨어요. 22개 시군 중 4등 하셨고요. 등수보다 더 좋았던 게 경북 도립국악단에 제자가 있는데 가서 봤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해 많이 다르던데요.' 그래서 '당연하지! 1년이란 세월이 있었잖아' 이러면서 막 자랑했답니다. 바쁘지 얼마 안 된 경상도 가락을 칭찬받으니 정말 좋았어요.”

—김도연 강사

괴시민속마을 마을 굿_지신밟기



“진짜 행사 자체가 방대했죠.

우리가 이때까지 접해보지 못한 거였고 고수분들 하시는 것도 직접 보고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치는 것 보다 그분들 뵈고 그분들이 하는 것 본 것이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조경현 단원(상쇠)

삼사리 물항장 행사



“저는 도대회나 큰 행사보다 작은 마을 단위 공연이 재밌어요. 인원도 적으면 적은 대로 신이 나죠. 호응도 바로 바로 해주시잖아요. 마을에서 어르신들하고 막 같이 흥겹게 노는 이런 분위기가 더 좋아요.

최근에 삼사리 물항장에서 했던 길놀이에서 진짜 신명나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박미래 단원(부쇠)

축적의 과정

_특강



축적의 과정

_특강

뽕과리 특강

-매주 금요일 7시

-영덕읍 새마을금고 지하 연습실



Q.뽕과리 특강을 시작한 계기는?

방영식 강사 — 뽕과리 특강은 올 2월 대게축제 퍼레이드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각 풍물단의 상쇠만 모아서 축제 퍼레이드를 할 때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량 위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9개 읍·면의 상쇠, 부쇠들은 고정적으로 특강에 참여하는데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처음 치는 사람들도 뽕과리가 어려운 악기가 아니다 라는 게 알려져야 해요.

Q.뽕과리 특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방영식 강사 — 뽕과리(상쇠)가 결국은 지휘자이기 때문이에요. 뽕과리 가락이 몰고 나가면 나머지 장구, 북 이런 악기들은 그 템포대로 따라갑니다. 풍물에선 뽕과리가 제일 중요해요.

Q.뽕과리 특강에서 주안점을 두는 건?

방영식 강사 — 경상도 뽕과리도 농악처럼 여러 지역마다 갈래가 있어요. 특히 뽕과리는 사람의 언어와 정서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투리를 들었을 때 이거는 경상도 말이다 아는 것처럼 뽕과리도 그런 지역색, 사투리가 다 있습니다. 사물놀이 경우는 남사당 중심, 즉 경기도 충청도 지역 뽕과리를 무대화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 자체도 우리말로 하면 표준어에 가까워요.

그런데 영덕에 와서 보니 전라도 뽕과리 언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경상도 여러 지역의 뽕과리를 모아서 수업을 했어요. 영덕만의 뽕과리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찾기가 힘들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영덕의 뽕과리를 발굴하고 조합해서 '영덕의 뽕과리'라고 할만한 체계를 만들고 싶어요.

뽕과리 특강은 매주 진행합니다. 재단의 계획은 11월까지로 되어있는데 내년 2월까지 계속할 겁니다. 왜냐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뽕과리는 자기 지역 언어를 쓰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Q.경상도와 전라도 팽과리의 특징은?

방영식 강사 — 경상도는 일단 굉장히 일단 성격이 강하잖아요. 짧고 굵게 일단 때리거든요. 쇠를 쪼갤 정도로 쳐야 합니다. 박진감 넘치고 투박하고 가락도 빨라요. 전라도는 뭔가가 나긋나긋하고, 가락도 좀 느립니다. 장기전이죠. 아주 호흡이 길어요. 경상도는 막 시원하게 몰아서 치고, 한 번 쉬었다가 또 한번 왕창 짧고 굵게 놀죠. 단원들이 저를 만나서 참 좋았다고 하는 점이 뭐냐면 팽과리에 경상도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릴 때 할배들한테 들었던 가락이 생각난다, 옛날 기억이 난다’고 하세요. 그것 때문에 새로 배우기 시작하신 분도 있습니다.

Q.팽과리만 집중적으로 특강하는 곳이 있나?

방영식 강사 — 드물죠. 팽과리는 1대 1로 전수된 악기였거든요. 팽과리는 내 후계자가 아니면 가르쳐주지 않아요. 정리된 체계보다는 구전에 의해 이어져 왔죠. 그러다보니 비전(祕傳)이 된 거죠. 장구에 비해 교육 체계라든지 이런 게 부실해요. 악보나 교안이나 이런 게 별로 남아 있지 않아요. 녹음도 없어요. 오로지 말에서 말로 배우고 선생님이 치는 정서를 보고 배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어떠한 선생님들이 사라지면 그 맥은 끊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무질서의 악기, 추상적인 악기 팽과리를 질서 즉 체계 속으로 넣고 정리하기 위해 제가 경주에서도 팽과리 특강을 하고 영덕에서도 하고있는 겁니다.

Q.특강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방영식 강사 — 사물놀이나 지금 보통 유행하는 풍물은 어떻게 보면 호텔식 음식이거든요. 요리사를 메뉴얼대로 훈련시켜 대중적인 음식을 만들어 내는... 레서피화 된 음악이죠. 그런데 지역의 팽과리는 한 60년 동안 된장찌개를 만들었던 할머니들의 손맛이에요. 그 지역의 환경과 개인의 역사가 스며있는 손맛이죠. 지역만의 그런 특색을 살려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제예요. 그 다음 풍물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신명의 공유예요. 풍물이 갖고 있는 최고의 에너지는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거거든요. 공간만 존재하지 거기서 춤을 어떻게 추고, 줄 맞춰 추고,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 해방감들이 풍물에서 제일 중요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1. 보이지 않는 이 신명의 공유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2. 경상도의 팽과리 언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3. 앞으로 영덕 팽과리의 정통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만들어지면 저의 과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Q. 특강을 하면서 단원들의 성장을 느끼나?

기량도 기량이지만 정서 자체가 공명하는 게 느껴집니다. 신명의 공유, 신명이 막 퍼져나가는거죠. 그런 부분이 늘어나면 팽과리가 느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리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전에는 하나의 정서 없이 그냥 가락만 쳤다면 올해는 점점 신명이 올라가지고 막 웃으면서, 본인이 신나서 움직이는 것이 보여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런 신명 안에서 그것들이 질서가 잡히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진법이나 기술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 신명을 잃지 않으면서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일이죠.



장구 특강

-매주 금요일 5시

-영덕읍 새마을금고 지하 연습실



다시 길을 열다

_2024년 기대와 계획

가까운 내년, 그리고 다가올 미래
9개 읍.면 풍물단은 어떻게 변화 발전하게 될까?
어떤 콘셉트와 기획으로
한 걸음, 한 계단, 한 차원 더 도약하게 될까?
9개 읍.면 풍물단을 이끌어온 강사진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미래 설계도를 펼쳐놓았다.



다시 길을 열다

_2024년 기대와 계획

병곡면 고래불 풍물단 김나영 강사

병곡면 고래불 풍물단은 지금 기본 가락을 하지만 완성도 면에선 약간 아쉬운 면이 있어요. 내년에는 농악 한 부분을, 이를테면 경상도 농악 등을 발췌해서 작품성 있는 걸로 하나 만들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범용의 농악이라면 내년에는 어떤 특정한 어디 농악, 병곡면 농악이라고 이름을 걸만한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다른 지역의 농악을 가져와도 실례가 안 될 정도로 지금도 기량을 만들고 있어요. 병곡면 고래불 풍물단의 이름을 달고 그 레퍼토리로 나가는 거죠. 우리 단원들, 잘 따라올 거라고 믿고 욕심을 더 내보는 겁니다. 도전과제를 갖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이죠.

영덕읍 오십천 풍물단 김도연 강사

오십천 풍물단은 올해까지 판을 전체가 도는 것만 계속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디테일한 걸 잡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부분 개별적으로 판에 나오는 동작을 했다면 각 악기별 개인기가 있거든요. 북 노름이나 장구 노름, 그 다음에 상쇠, 부쇠들에게 상모 돌리기도 해보고 싶어요. 내년엔 전체 판놀음도 완벽하게 해야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기별 개인기에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경상북도 가락과 오십천 풍물단 만이 할 수 있는 화려한 기량도 더 연마해서 영덕군 풍물 대표선수의 위용을 만들어야죠.

축산면 풍물단 김구대 강사

축산면 풍물단은 올해 전체 단원들이 장구, 북, 쇠 모든 악기를 다 해보고 있는데 내년엔 악기를 배정해서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풍물의 기본기는 장단, 동작, 진법입니다. 크게 가락을 먼저 배우고 이 가락에 맞는 동작을 배우고 이것들을 연결하는 진풀이(진법: 서서 움직이며 치는 풍물)를 배우는 순서거든요. 이렇게 보통 3단계를 가는데 내년에 동작에 집중하면 3년쯤 지났을 땐 진법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울산 달리 농악은 3년은 돼야 마스터 가능해요. 공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는 아주 간추린, 약식으로 만든 거니까 전체의 1/3밖에 안됩니다. 할 게 무궁무진하죠. 풍물은 전체로 동시에 막 움직이는 단체놀이이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악기별로 개인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달리농악을 마스터하면 북 개인놀이, 장구 개인놀이, 소고 개인놀이까지 할 생각입니다.

농악이 종합 예술이다 보니 제대로 하려면 한 10년은 배워야 해요. 욕심을 부리지면 내년 목표는 단독 공연입니다. 괴시마을 지신밟기나 대계 축제 같은 대형 행사는 풍물단의 화합을 위해 필요하고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단독 발표회나 단독 초청공연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창수면 풍물단 이현석 강사

창수면 풍물단은 내년, 지금하는 진주12차농악의 길군악을 마스터하고 다른 진들을 추가하고 싶어요. 더 다양한 진법이나 범용의 풍물에서 쓸 수 있는 더 복잡한 진법, 그런 거를 하고 싶은거죠. 자진모리를 치면서 하는 거라 장단만 익히면 움직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영덕에 풍물경연대회가 생기면 경쟁이 되니까 실력 향상에 좋죠.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다들 생업이 있으니까 대회 나가자고 하면 너무 힘들어하시긴 해요. 큰 욕심 내지 않고 차차 하나씩 숙달해가는 방향으로 접근할 겁니다.

달산면, 남정면 월봉풍물단 정준호 강사

달산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풍물은 앞으로 12걸이, 12차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단원들이 어느 정도 기본이 돼서 그걸 수용해 낼 수 있는 단계가 되면 ‘판굿’처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정형화시켜야 달산 농악이 됐든 뭔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누리 길군악이라고 만들었어요. 퍼레이드용으로 길을 가면서 치는 풍물이죠. 그렇다고 전통을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떤 근거는 있어야죠. 어느 시대든 먼저 만든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락이 또 전통이 되겠죠.

남정면 월봉풍물단은 작년 재창단 한지 얼마 안돼서 대회 나가 2등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팀 자체가 굉장히 고무됐죠. 흥을 끌어올리고 신명나게 노는 것도 중요한데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노는 게 아니라 시기와 장소에 적합하게 맺고 푸는 절제가 있어야 격이 있고 멋있는 풍물이 되는 거죠. 내년엔 그렇게 자세를 만들고 가꾸어 가는 게 목표이기도 합니다.

강구면, 영해면 풍물단 방영식 강사

저는 영덕에서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우리가 괴시마을에서 마을굿을 한 것처럼 각 동네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지신밟기라든지 아니면 정월 보름 때 아침부터 시작하는 마을놀이. 마을의 상여문화까지 끌어내 활성화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문화나 예술, 특히 공연 예술을 봤을 때 산으로 치면 산 정상만 딱 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산 안에 있는 골짜기라든지 능선이나 다 합쳐져서 산이 되는데, 산 정상만 보고 ‘이게 산이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화는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되죠. 산 전체를 다 알아야 됩니다. 산 정상만 따지게 되면 무조건 그 문화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산 전체를 복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덕에서 저의 욕심이죠.

그래서 영해면, 강구면 풍물단에서부터 마을 놀이를 개발하고 그런 걸 마을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산 출신이고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어디 출신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정체성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언어를 만드는 것, 찾아내는 것은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에펠로고

풍물의 매력에 대해 많은 이들은 한 단계를 넘어설 때의 쾌감을 꿈는다.
풍물을 잘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기량이 늘 때
기쁨이 크다는 뜻이다.

그래서 풍물은 매력보다 마력!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못하는 마력의 자기장이 있다.

연습실로 들어올 땐 평범한 어르신들이 석를 쥐고 징을 치면
허리가 꼳꼳이 펴지고, 발도 가볍게 노닐고
얼굴엔 박꽃같이 환한 웃음이 핀다.
풍물의 힘, 함께 상승하는 에너지다.

휘몰아치듯 판이 돌아가고 소리가 정점에 다다르면
나이도 성별도 너도 나도 구분 없이
하나 된 열기만 공간을 채운다.
일생 고달프고 억눌리고 기 펴보지 못한 삶이라도
풍물만 손에 쥐면
세상을 호령하는 우주의 주역이 된다.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을 하나로 잇는
공동체의 소리!

흥에 취하고
터를 울리고
마침내 사람을 잇는 공명의 소리!
이것이 풍물이다.

사 진 | 주현우

편 집 | 김소연

디 자 인 | 강리안

기획 · 글 | 영덕문화관광재단

터를 올리다

영덕 9개 읍·면 품물단 1년의 기록

본 책자는 영덕군 주최,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2023문화도시 조성사업 중 ‘영덕 9개 읍·면 마을문화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출간물의 저작권은 영덕군과 (재)영덕문화관광재단에 있으며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사업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99

www.ydct.org

054)730-5884

주최



영덕군
Yeongdeok-Gun

주관

영덕문화관광재단